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신문방송학석사 학위논문

부부소통이
부모-자녀간소통에 미치는 영향
- 갈등대처방식을 중심으로



2017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신 문 방 송 학 과

TANG LUMAN

신문방송학석사 학위논문

부부소통이
부모-자녀간소통에 미치는 영향
- 갈등대처방식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용 호

이 논문을 신문방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신문방송학과

TANG LUMAN

TANG LUMAN의
신문방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주 심 정치학박사 한혜경 (인)

위 원 문학박사 오창호 (인)

위 원 철학박사 김용호 (인)

<목차>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목적	8
II. 이론적 배경	12
1. 부부갈등	12
1) 부부갈등의 개념	12
2) 부부갈등의 요인	13
3) 부부갈등 지각과 관련된 가정 환경적 변인	14
4) 부부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18
2. 부부 갈등대처방식	21
1) 부부 갈등대처방식의 개념	21
2) 부부갈등대처의 관련변인	23
3.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갈등대처방식	25
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갈등대처방식개념	25
2)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의 유형	27
3)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중요성	28
4)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변인	31
4. 부부갈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33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36
1. 연구 모델	36
2.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37
3. 연구 방법	38
1) 측정도구	38

2) 설문지의 구성	46
3) 자료 수집 방법	47
4) 자료 분석 방법	48
IV. 연구결과	50
1. 분석결과	50
1) 사회인구학적 특성 분석	50
2) 부모 부-부간 소통, 갈등요인 및 대처방식 분석	53
3) 부모가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갈등대처방식	55
2. 연구문제의 대한 가설 여부	58
1)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에 대한 배경변수별 차이	58
2) 배경변수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갈등대처방식 차이..	68
3) 부모 부-부갈등,대처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갈등대처방식의 관계	79
V. 논의 및 결론	88
참 고 문 헌	99
부록: 설문지(국문 및 중문)	104

<표 목차>

<표Ⅲ-1> 자녀가 지각한 부모 부-부간갈등 항목구성 및 신뢰도	40
<표Ⅲ-2>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항목구성 및 신뢰도	42
<표Ⅲ-3> 부모가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항목구성 및 신뢰도	44
<표Ⅲ-4> 부모 부-부간 소통,갈등요인 및 대처방식 항목구성 및 신뢰도	45
<표Ⅲ-5> 설문지 구성	47
<표Ⅳ-1> 사회인구학적 빈도 분석	50
<표Ⅳ-2> 부모-부부간 소통,갈등요인	53
<표Ⅳ-3> 부모-부부간 갈등 대처방식	54
<표Ⅳ-4> 부모가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55
<표Ⅳ-5> 부모가 지각한 부모-자녀간 갈등 대처방식	57
<표Ⅳ-6> 자녀 성별에 따른 부모-부부갈등 인식차이	58
<표Ⅳ-7> 부학력에 따른 부부갈등인식차이	60
<표Ⅳ-8> 모학력에 따른 부부갈등인식차이	61
<표Ⅳ-9> 부직업에 따른 부부갈등 인식차이	63
<표Ⅳ-10> 모직업에 따른 부부갈등 인식차이	65
<표Ⅳ-11> 생활수준에 따른 부부갈등 인식차이	66
<표Ⅳ-12> 가정 분위기에 따른 부부갈등 인식차이	67
<표Ⅳ-13> 자녀 성별에 따른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갈등대처방	69
<표Ⅳ-14> 부학력에 따른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갈등대처방식	71
<표Ⅳ-15> 모학력에 따른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갈등대처방식	72
<표Ⅳ-16> 부직업에 따른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갈등대처방식	73
<표Ⅳ-17> 모직업에 따른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갈등대처방식	75
<표Ⅳ-18> 생활수준에 따른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갈등대처방식	77
<표Ⅳ-19> 가정분위기에 따른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갈등대처방식	78

<표Ⅳ-20>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부-자녀간 의사소통 및 갈등대처 방식 관계	82
<표Ⅳ-21>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갈등대처 방식 관계	85

<그림 목차>	
<그림Ⅲ-1>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종속변인들 간의 영향	36



부부소통이 부모-자녀간 소통에 미치는 영향
- 갈등대처방식을 중심으로

TANG LUMAN

부경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요약

본 연구는 중국에서 거주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로 주요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또한 조사 대상들은 학자녀와 학부모 포함하여 정상적 1인자녀 가정 중에서 양쪽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대상만을 선정하였다. 자녀가 부부갈등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으며, 그것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갈등대처방식과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봄으로써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부부갈등을 줄이고 갈등의 효율적 대처를 통하여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보다 기능적이고 개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 부-부갈등은 배경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자녀가 지각한 부모 부부갈등 및 대처방식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중국 사천성(CHENG DU시)에 위치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방문 협조를 요청 후 조사를 실시하여 학생편은 현장조사로 하고 부모편은 숙제 회수로 실시하였다. 최종의 300부 자료는 SPSS 21.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 t검증과 이원변량 분석, 그리고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변인이 낮을수록 자녀는 부부갈등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갈등대처방식은 전반적으로 보면, 문제형 의사소통 보다는 개방형 의사소통이 더 이루어졌고, 어머니와 더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연령이 적고 생활수준이 높은 가정일수록 아버지, 어머니 모두와 개방적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졌다.

셋째,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갈등대처방식은 자녀가 부부갈등을 낮게 인식할수록 아버지, 어머니와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직면적 대처방식이 많이 이루어지고, 부부갈등을 높게 인식할수록 아버지, 어머니와 문제형 의사소통과 회피적 대처방식을 많이 하였다.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은 의사소통과 갈등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더 나아가 자녀의 문제행동까지 일으킬 우려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부부갈등이 청소년기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측면과 심각성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부부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의사소통 방법이나 갈등대처방법 등의 부모교육이 요구된다. 부부는 사소한 의견 차이에서 혹은 육아문제,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상황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갈등 해결에 집중하지 못하면 갈등이 왜곡되어 가족 해체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갈등에 적극적으로 대화로 대처하다 보면 갈등 해결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과 분노가 감소되는 등 가정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The Influence of Couple Communication on Parent - Child Communication

TANG LUMAN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selected primary research subjects as high school freshmen residing in China. In addition, the survey subjects selected only the first - generation normal housewives including students and parents who live with both parents. By looking at how children are perceiving marital conflicts and whether they have parent-child communication, conflict-coping style and influence, families with children recognize the importance of marital relations and reduce marital conflicts and effectively deal with confli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ake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more functional and open.

The research problems set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do parental conflicts perceived by children have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background variables?

Second, how does the child's perceived parent-child conflict and coping style affect parent-child communication?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high school students located in Sichuan province, China (CHENG DU city), and a survey was conducted. The students conducted field surveys and the parents conducted homework surveys. The final 300 items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t - test, two - way ANOVA, and correlation analysis

using SPSS 21.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marital conflicts perceived by children were generally high. In particular, male students were more likely to perceive marital conflict than female students. In general, the lower the socioeconomic variables of parents, the higher the perception of children about marital conflict.

Second, the parent - child communication and conflict coping methods perceived by the children were more open communication than problem communication and more open communication with mother. The more open the father and the mother, the more open communication was made with the father 's age and living standard.

Third, marital conflicts perceived by children, parent - child communication and conflict - coping styles are more likely to be felt when children perceive marital conflicts as more open to communication with their fathers and mothers and cope with problem areas, The more they recognized, the more they communicated with their fathers and mothers and avoided coping.

Marital conflicts perceived by their children have an impact on communication and conflict coping strategies, suggesting that they may even lead to child behavior problems.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educate the parents about the negative aspects and seriousness of the marital conflicts to the adolescent children and the communication methods and conflict coping methods to prevent the marital conflict. Couples may have conflicts in a variety of situations, such as minor differences of opinion, child care, or economic problems. However, if they can not concentrate on conflict resolution, conflicts may be distorted and lead to family dismantling. However, if we actively engage in dialogue with conflict, it can lead to a positive change in the family, such as reducing psychological security and anger through conflict resolutions.

I 서론

1. 문제제기

가정은 인간이 출생한 후 일차적으로 갖는 환경이며 최초의 교육의 장으로서 지적과 비지적인 것을 포함한 전반적인 특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곳이다. 인간이 일생동안 소속되어 혈연적 관계를 맺는 가정은 개인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가깝고 중요한 생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이 안정되고 건전해야만 사회도 안정되고 건전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가정은 개인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중요하다.¹⁾

가족에 있어서 세대간의 관계를 강조하는 Terkelsen(1980)에 의하면, “가족은 상호간의 강한 애정과 충성으로 맺어진 개인들로 이루어진 소규모의 사회체계이며, 수 년 혹은 수십 년 지속되는 영구적인 가구를 구성하는 소규모의 사회체계” 라고 정의하였다.

가정내의 인간관계 중 부모-자녀 관계는 가장 기본적이고 영구적인 관계이며 인간의 성장 발달이나 행동 양식의 학습의 중요한

1) 박기정, <가족 커뮤니케이션>, 사회과학, 23호, 1984, P155

결정요인의 하나인데, 특히 부모-자녀관계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하는 매개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이라 할 수 있다.²⁾

가정내의 부부관계는 사회속에서 우리가 맺는 다양한 인간관계 중 하나로서, 삶을 영위하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부부관계는 부부 개인뿐만 아니라 자녀를 포함한 다른 모든 가족구성원들에게 신체적이고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내의 핵심적인 관계이다. Satir(1975)는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이며, 모든 가족관계 형성의 가장 기초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부관계는 어느 집단에서나 부부 두 사람 모두에게 상호적으로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가정환경의 부정적인 단면은 부부갈등이다. 부부갈등은 공통적으로 아동의 정서적, 행동적 문제, 사회적 문제, 사회적 능력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Holden과 Ritchie(1991)의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이 아동의 불안과 위축을 증가시켰고, 그에 따라서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이 결여되어, 열등감과 부정적 자아관을 갖게 되는 만큼 부부갈등은 아동에게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부부간 갈등으로 인하여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관찰할수록 자

2) 장호선,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성심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p3

녀들은 더 많은 문제행동을 일으키고,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여 자녀의 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부간 갈등은 청소년에게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이 부모의 부부갈등에 대하여 어떻게 지각하느냐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부부갈등이 아동의 행동문제, 즉 내면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부부갈등이 아동과 청소년의 행동문제 및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 볼 수 있다.

부부갈등 상황에서 노출되는 자녀는 부모간의 불화에 매우 민감하여,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피해를 입거나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자녀들의 심리적 적응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부부간의 갈등에 노출되었던 자녀들은 불안, 우울, 의기소침 등과 같은 정서문제를 경험하게 되고,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경향도 보인다³⁾. 또한 가정이 갈등적이고 폐쇄적이며, 부부불화가 많은 경우에는 자녀학대가 많이 발생될 수 있다. 가정에 불화가 잦고 가족간의 갈등이 많은 가정일수록 정상가족에 비해서, 부모와 역기능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자녀의 비행행동도 높게 나타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부갈등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청소년기에 더욱 뚜

3) Cummings, Gocke-Morey, Papp, 2001

렷하게 나타낸다.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불안정한 시기로 인간의 발달 단계중 정서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시기다. 특히 불량한 것, 부정적인 것을 더 신속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기는 시각, 청각, 촉각등 모든 감각이 가장 민감한 시기다. 작용하므로 외적 자극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여 곧 행동에 옮기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기가 되면 자녀들은 부모보다는 그들의 관심과 취미 등이 비슷한 동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부모에 대한 의존성은 점점 감소하고 세대차이와 부모의 권위에 대한 자녀의 태도 변화 등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게 된다. 그런데 이런 갈등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 안정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지 못하다면 부모와 자녀간의 균형은 깨지고 나아가서 자녀의 문제행동을 가져 오기 쉽다.

부모들은 청소년기 자녀의 이러한 발달과 변화를 이해하고 수용하여 건전한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분위기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대화가 매우 필요하다. 부모와 자녀와의 언어적인 대화, 또는 의사소통의 원활한 정도는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서로 다른 세대간의 입장에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각자가 처해 있는

난관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즉,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청소년기의 급격한 변화로 일어나는 의문, 오해나 갈등, 그 외의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한다. 청소년의 인간관계 발전과 아울러 올바른 인간으로의 성장 발달을 돕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특히 부부관계의 하위체계가 부모-자녀관계와의 연결을 통하여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가족이론들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⁴⁾. 부부간 갈등으로 인해 느끼는 부모의 스트레스, 좌절, 무기력감은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부간 갈등에서 생겨나는 부정적 감정은 부모-자녀관계에 전이되어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부관계 하위체계와 부모-자녀관계 하위체계의 한 가지로서 부부갈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연합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또한 이 두 가지 요인은 한 가족안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서로간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은 자신이 지각하는 가정의 분위기가 화목할때 불화인 경우 보다 부모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느꼈다. 가정 분위기가 화목할수록 대화의 만족도를 높게 지각하고 부모와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였다.

4) 아동기 심리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가족편, Belsky, 1981

현대 사회의 격변은 가정내에서 부모-자녀관계에 많은 갈등과 문제를 야기시키며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기 자녀와 그 부모 사이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아동기에서 성년기에 접어드는 과도기로서, 많은 문제와 욕구좌절에 부딪칠 때 가정의 교육적 기능 약화와 가정내 부모-자녀간의 대화 기회가 부족되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는 과거의 권위와 순종의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작용적 관계나 동료적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변화는 과거에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부분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현대 가족에서는 필수적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족간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의사소통이 가족의 상호작용의 요체이며 가족의 특성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부모와 자녀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많은 연구자들도 연구되어 왔다.

의사소통 과정중에서 의견이 불일치할 때 갈등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 갈등을 통해서 개인이 성장할 수 있으며 갈등경험은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갈등을 대처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개인이 선택하는 갈등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영미, 민하영, 이윤주의 연구(2005)에 의하면 부모의 갈등이 낮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 때 후기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적응이 가장 양호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부모간의 갈등이 높더라도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인 후기 청소년은 갈등이 높은 낮은 폐쇄적 의사소통을 하는 청소년보다 학교생활 부적응이 낮고 불안성향도 더 낮게 연구되었다.⁵⁾ 즉 개방적이고 원활한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부부의 갈등이 높더라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가족 내에서의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갈등의 발생을 줄이면서 나아가 갈등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상호작용방식, 특히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부의 지속적인 갈등은 자녀의 공격적 성향 발달에 명백한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다. 부모 상호간의 갈등방식은 부모간의 관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녀간의 관계에서도 적용 될 것이다. 그러한 과정이 자녀의 공격적 성향과 관계가 있을 것이 쉽다.

많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부 갈등과 갈등대처방식이 자녀에게 불안과 위축을 증가시켰다고 하였고 부부갈등은 자녀에게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부부간 갈등으로 인하여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관찰할수록 자녀들은 더 많은 문제행동을

5) 김미자,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부부갈등이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5

일으키며,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여 자녀의 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또한 부모-자녀 관계나 양육태도 등에 전이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와 부모가 지각한 부부갈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및 대처에 관한 선행 연구가 많이 없고 특히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및 대처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부부갈등으로 인한 부모-자녀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기 자녀에게 부부갈등 및 대처가 주는 부정적인 영향과 청소년기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자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갈등대처방식을 중심으로 부부소통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부부갈등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변인 중 자녀의 성별, 부모의 연

령, 학력, 직업, 그리고 가정의 경제 수입에 따라 생활수준, 가정 분위기를 선정하여 이에 따른 부부갈등지각의 차이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가 부부갈등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으며, 그것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봄으로써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부부갈등을 줄이고 갈등의 효율적 대처를 통하여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보다 기능적이고 개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고등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고등학생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는 이유는 청소년기는 다른 발달과정에 비해 생후 첫 1,2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변화가 큰 시기로 급작스럽게 변하는 신체적 외모와 생물학적 성숙, 새로운 역할과 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면서 심리적으로 많은 갈등과 불안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의 조사 대상들은 학자녀와 학부모를 포함하여, 정상적 1인자녀 가정의 부부갈등과 부모-자녀간 의

사소통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양쪽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대상만을 선정하였다. 이 연구는 사회배경변인에 따라서 부모-부부간 소통, 갈등요인, 대처방식차이를 분석하여, 자각하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서 자녀가 부모 부부갈등을 어느 정도를 지각하는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두 변인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 부부갈등은 배경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배경변수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갈등대처 방식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자녀가 지각한 부모 부부갈등 및 대처방식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또한, 이론적 연구와 문헌적 연구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고, 실증적 연구방법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에서는 연구목적에 대한 고찰로 논문 전반에 대한 흐름을 설명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부부갈등, 부부갈등대처방식,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등에 대해 전반적인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제3장은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연구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측정도구의 신뢰도 측정을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제4장은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경변인에 따라서 자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관련된 연구문제를 분석한다. 제5장은 지금까지 연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부소통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부부갈등

1) 부부갈등의 개념

갈등은 개인 내부에서 또는 두 사람 이상의 대인관계에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이해관계가 존재할 때 나타나는 대립현상을 말한다. 두 개 이상의 대립하는 충동이나 욕구가 동시에 존재하여 해결에 곤란을 느끼는 것으로 자신의 바람과 다른 사람의 바람이 양립할 수 없다고 믿는 과정이다.

갈등에 대한 입장은 학자에 따라서 긍정적인 현상 또는 부정적인 현상으로 해석된다. 갈등에 대해 Ross(1920)는 집단 간의 대립은 긴장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을 더욱 강하게 하고 공고하게 하였다. Coser(1956)은 갈등은 한 사회 및 집단의 일체감과 경계를 확립, 인간관계에서 적의의 해소를 위한 하나의 배출구로 기여함으로써 적대자와의 관계를 보존시키는 기능을 한다. 작용이 빈번하고 친밀한 관계일수록 쉽게 발생한다고 하여 긍정적인 현상으로 분석하였다.

가족관계에서의 갈등을 살펴보면 Sprey(1971)는 갈등이론을 "

개인 또는 집단들이 희소한 자원, 논쟁이 되는 수단, 상반된 목표를 놓고 대결하는 것"이라 하였다. 갈등의 상태란 둘 이상의 불화 즉 당사자간에 계속적인 충돌이 존재하는 것이다.

가족관계 중에서 부부는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욕구 충족과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서로 상충하면서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부부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경험하며 성장하였고 각자 고유한 가치관, 태도,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상이한 개념을 가질 수 있으므로 부부 상호작용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부부갈등은 부부사이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목적을 가진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거나 그에 대해 얘기할 때 갈등이 시작되며 이때 상대방의 목표는 방해 받게 된다. 이러한 부부갈등은 인간 상호작용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가족체계라는 하나의 구조 속에서 부부 각자의 욕구가 성공적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해와 이해의 결여와 같은 장애물, 그로 인해 받는 어려움의 정도와 긴장이라고 할 수 있다.

2) 부부갈등의 요인

부부갈등을 발생시키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owrew(1927)는 부부갈등의 원인으로 경제적 조건, 건강조건, 개인적 조건, 사회적 조건을 제시하였다. Macmillan(1969)은 대인적 관계 문제, 성격문제, 경제적 문제, 사회.문화 배경 문제, 자녀문제, 건강문제, 시댁문제로 여러 가지 분류하였다. Rice(1979)는 부부갈등의 요인을 사회적 상관요인인 지위, 소득, 교우문제와 관계요인인 애정, 존경, 관계의 평등, 성적 관계, 의사소통, 자녀관계와 개인적 상관 요인인 건강, 가치관, 취미 등으로 분류하였다.

3) 부부갈등 지각과 관련된 가정 환경적 변인

(1) 부모 변인

부부가 처한 가정의 인적, 물적 환경은 부부의 적응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부부갈등과 관련된다. 이러한 부부갈등과의 관련변인 중 본 연구에서 선택한 자녀가 지각한 부모변인이 부부갈등과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가정의 경제적 수준

가정의 안정과 부부간의 만족감은 적절한 수입과 관련이 있다. 즉 남편의 수입이 불충분하다거나 안정된 수입이 없는 경우 부인에게는 커다란 불만이 되며 남편에게도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좌절감과 열등감, 실패감을 맛보게 할 수 있다.

Pirtropito와 Simeaur(1979)는 돈은 결혼 갈등의 주요 근원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자신의 안정감, 자존감, 타인의 인정과도 관계되어 수단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남성에게 매우 부담을 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1.2 부모의 학력

교육수준에 따른 부부갈등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교육수준이 부부의 의사소통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즉 교육수준의 증가는 의사소통시 합리적인 사고와 이해의 폭을 넓혀주기 때문에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어 부부갈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한다.

1.3 아버지의 직업

아버지의 직업에 있어서 도시근로자 계급과 하류계급은 자본가 계급, 중간계급보다 부부갈등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

다. 부부의 결혼적응은 그들의 직업유형과 관계되어 있는데 부부의 만족도 및 결혼적응은 남편의 직업이 전문직에 가까울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남편의 직업이 전문직인 경우가 비전문직인 경우보다 부부갈등이 적게 나타나는 것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자일수록 자신감을 가지고 부부관계에 응한다. 역시 남편으로 인한 사회적인 지위향상에 대해 만족감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1.4 어머니의 직업

몇몇 정신분석학자들은 여성의 직업활동이 비 여성적인 성격의 측면으로 간주되는 공격성, 지배성을 조장시켜서 지배적이고자 하는 남성들에게 가족부양역할의 부담을 줌으로써 남편의 자아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배우자간의 갈등을 야기시킨다고 한다.

그러나 Burke, Weir(1976)는 취업부인이 비취업 부인보다 직업을 통한 사회적 접촉에서의 즐거움 등으로 갈등을 더 적게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부인의 취업이 가족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어머니의 위세와 남편의 부인에 대한 평가를 높이며 가족 내 민주주의 적인 의사결정의 양을 증가시키고, 부인은 직업과 관련된 사회적 접촉을 즐기므로써 부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2) 자녀변인

부부갈등 지각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는 자녀변인과 본 연구자가 선정한 변인에 따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성별

Porter와 O'Leary(1980)는 만 5세에서 16세까지의 남아 37명, 여아 27명 총 64명의 병원에 의뢰된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연구에서 어머니가 평가한 부부갈등이 클수록 특히 남아의 정신병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즉 부부갈등이 10세 이하의 남아에게는 행동장애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하였으며, 10세가 넘는 남아에게는 비행성격장애, 미성숙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김소향(1994)의 연구에서는 부부 갈등시 남아보다 여아가 슬픔을 크게 느끼지만 여아보다 남아가 갈등이 더 증가 될 것이라고 인식하여서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부갈등을 지각하는 데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또한 Emery와 O' Leary(1982)도 남아와 여아는 동등하게 부부갈등에 노출되며 부부갈등의 지각도 동등하게 인식한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한 결과로 남아와 여아 모두 부부갈등의 노출에 의해 동일하게 영향을 받는다.

4) 부부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부부갈등은 갈등 당사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부부갈등의 결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다. 가족 구성원들이 갈등과 긴장감으로 가정생활을 계속할 때 자녀들은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게 되고 법의 가치기준과 행동규칙을 수용할 마음의 자세를 갖추지 못하게 된다.

부부의 불화는 가족체계의 긴장 유발과 불만 요인으로 기능 하며 이러한 이유로 부모들은 자녀를 적절한 방법으로 양육할 수 없다. 이러한 부모 밑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은 우울해지고 부모에게 쉽게 격분하며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된다.

부부갈등에 대한 자녀의 지각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남아가 여아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 학력이 낮을수록 부부간의 안정성이 낮아 높은 갈등을 나타낸다. 부모의 학력이 중졸이하인 경우에 부부갈등을 가장 높게 지각한다고 한다.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상층에서 하층으로 낮아질수록 자녀는 부부갈등을 유의하게 높게 지각했다.

다음은 부부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부부갈등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빈도

부부갈등의 빈도와 자녀의 문제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는데, 부모의 갈등 빈도가 많을수록 자녀들은 더욱 스트레스를 느끼며 분노와 불안정감을 경험하는 등 심리적인 문제가 심해지는 양상을 나타낸다.

자녀에게 부부갈등이 계속 노출될 경우 두 가지의 상반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자녀가 부부갈등에 무디어져서 거의 행동 문제를 보이지 않거나 반대로 빈번한 갈등에의 노출이 아동으로 하여금 갈등 상황에 보다 예민하게 하여 더 많은 행동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부간의 분노상황에 대한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에 자주 노출되는 자녀가 덜 노출되는 자녀보다 더 격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즉, 잦은 부부갈등이 위협환경으로 작용하여 이혼한 가정의 자녀 들은 이혼 전부터 공격성, 충동성, 과잉행동, 불안한 정서적 문제를 더 많이 나타낸다.

(2) 강도 및 지각된 위험

Peterson 과 Zill(1986)은 1423명의 남녀 청소년과 그들이 부모를 대상을 한 연구에서, 부모 자신이 평가한 부부갈등이 심한 가정의 자녀는 부부간 사이가 좋은 가정의 아동보다 우울증, 위

축, 반사회적 행동, 과잉 행동 및 충동적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났다. 격렬한 부부갈등을 목격한 자녀는 슬픔을 느끼고 자신들이 쓸모없으며 또래보다 건강하지 못하다고 느낀다. 부모의 신체적 폭력을 목격한 자녀일수록 정서적·행동적 문제를 많이 나타내며,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다.

부부갈등의 강도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며, 학업성취도가 떨어지고, 자녀는 내면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는다.

(3) 해결

Davies & Cummings(1994)의 연구결과, 과거에 부모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자주 목격했던 자녀는 그렇지 못했던 자녀들에 비해 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부모는 그들 자녀에게 문제 해결에 대한 긍정적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능력과 대처기술을 향상시키게 되지만 빈약한 갈등 해결은 가족 내에 계속되는 긴장을 가져오면 더 잦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4) 내용 및 자기비난

부부갈등의 내용이 자녀의 양육문제에 관한 것일 때 자녀의 부

적응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는데, 갈등의 내용이 자녀 자신에 관한 것 일 때는 자녀의 내면화 증상과 더 많은 상관이 있고 그 외의 것 일때는 외현화 증상과 더 많은 상관이 있다.

Buchanan, Maccoby와 Dornbusch(1991)는 부모의 갈등 내용이 자신과 관련되어 있다고 지각하는 자녀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수치심과 책임감, 자책과 두려움 등을 더 많이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부부간의 갈등 정도가 심할 때보다 갈등내용이 자녀와 관련되어 있을 때 자녀는 자기 자신을 더 자책하고, 자녀가 관련과 부부갈등 상황에서 자녀는 자신이 싸움에 개입될 것 같은 위협을 크게 인식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부갈등에 노출되어 있는 자녀는 부모간의 불화에 매우 민감하여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피해를 입거나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2. 갈등대처방식

1) 갈등대처방식의 개념

갈등이란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목표, 기대, 또는 바람이 타인

과 일치하지 않는데서 오는 상호적 대립을 의미한다. 갈등은 살아가면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적대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나 연인과 같은 우호적인 관계에서도 발생하며, 실제로 서로 의견 차이가 있거나 한쪽 또는 양자의 오해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갈등은 대인관계에서 긴장, 실망, 좌절 등의 감정을 유발하고, 오해와 불신으로 인한 대인관계의 단절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갈등은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긍정적 사회관계를 촉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능도 지니고 있다.

화목한 부부관계란 부부간의 갈등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부갈등을 서로 잘 관리하는 부부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부갈등은 그 크기와 기간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야 하며 바람직한 해결과정을 통해 긍정적 결과가 산출된다면 건설적인 부부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부부간에 발생한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한다면 갈등이 누적되어 더 심각하고 복잡한 갈등으로 변하게 되고, 그 압력이 가중될수록 결혼한 것을 후회하거나 별거나 이혼에까지 이르게 되지만, 갈등을 잘 해결하기만 하면 상대방 또는 자신의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된다.⁶⁾

6) 권오실, 부부간의 갈등정고와 갈등관리방법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대부분의 부부갈등은 부부간의 상이성 때문이다. 부부는 성인이 되기까지 서로 다른 가족문화 내에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성장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부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필연적이라고 된다. 부부관계에서 갈등대처 방식에 부부 각자의 개인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부부갈등대처의 관련변인

(1) 사회인구학적 변인

1.1 성별

남성들은 관계속에서 자신의 독립성과 거리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여성들은 상호의존, 협동적인 문제, 친밀 보호를 원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로 인해 남편과 부인 간에 갈등을 표현하고 전달에 다루는 방법에 차이도 생기게 된다.

부인이 남편보다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된다. 부인이 결혼 생활에 대해 남편보다 더 민감하고 반응적으로 지각하고 갈등을 해결해야 될 책임자로 자신을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Berko, Rosenfeld와 Samovar(1997) 역시 여성들은 남

성들에 비해 적극적으로 갈등해 결책을 찾아내고 의논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으며 대처방법에 있어서도 여성들은 통합전략, 덮어주기, 타협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남성들은 갈등을 회피하거나 자신의 생각대로 문제를 다루려는 지배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국내 연구의 대부분은 남편이 주로 행동표출방식을 취하고 부인은 방어적 갈등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직업

부부의 결혼적응은 그들의 직업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는데 부부의 만족도와 전체 결혼적응은 전문직에 가까울수록 높게 나타났다는데, 반면 남편의 직업에 따른 갈등대처방법을 연구한 송영자(1986)의 연구에서는 직업에 따른 일정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김은정(1991)과 김양희(1986)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 반면 오히려 남편이 자신의 직업에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의해 갈등대처방법이 달라졌다.

1.3 학력

학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이성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말희(1990)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높

을수록 긍정적인 갈등관리방법을 취한다고 하였으며, 김갑숙(1991)은 대체로 남편의 학력이 높을수록 조용히 문제에 대해 논의하거나 해결한 정보 중재자를 구해오는 이성적 방법으로 갈등에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개인의 문제해결 기술 및 사회적 기술, 유능성과 관련되는 변수이다. 따라서 부부가 갈등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를 처리하는 능력과 매우 상관이 크다고 할 수 있다.

Scanzoni & Scanzoni(1976)는 부부의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폭력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교육수준이 낮은 가정에서 소리를 지른다든지 화난 표정을 취한다고 하였다.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말다툼을 더 많이 사용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3.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갈등대처방식

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갈등대처방식의 개념

의사소통이란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생각, 감정 또는 의견을 교환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의식, 행동 및 태도의 변화를 일으키

게 하는 일련의 행동을 의미한다. 즉, 의사소통은 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를 이해하는 모든 수단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타인과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결속감을 느끼게 된다. 특히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서로의 감정을 정화시키며, 가족 구성원이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의 사회화와 성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특성이 있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Barnes와 Olson(1985)이 제안한 순환모형(circumplex model)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순환모형에서는 가족 체계를 가족의 응집력과 적응력의 정도에 따라 1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최적의 가족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응집력과 적응력 간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모-자녀간 촉진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으로 구분되는데, 개방형 의사소통은 가족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공감적이며 지지적인 의견 표현 및 효과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지닌 의사소통의 유형을 의미하는 반면, 문제형 의사소통은 일관되지 않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하며 문제해결 능력이 낮아 가족 구성원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유형을 의미한다.

특히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관계를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매개체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자녀는 가정 내의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인간관계의 기초 및 사회화를 학습하게 된다. 이를 통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타인과의 갈등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촉진적 역할을 담당함을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와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자녀는 친구와의 갈등 상황에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며, 상대방과 자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갈등대처방식을 사용하였으며, 건강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부적응을 적게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갈등대처방식뿐 아니라 자녀의 전반적인 대처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부모와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자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처행동과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행동을 많이 하는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모와 통제적이고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녀는 소극적이고 회피하는 대처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의 유형

Barnes & Olson(1982)은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순환모형(CircumflexModel)에 기초하여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기능적인 수준이 되도록 도와주는 개방형 의사소통(Opencommunication)과 방해하는 폐쇄형 의사소통(problem communication)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개방형 의사소통은 정확하고 모순되지 않은 메시지를 보내고, 감정이입과 지지적 발언 및 효과적인 문제 해결 기술을 가지는 의사소통유형이다. 폐쇄형 의사소통은 일치되지 않고 모순된 메시지를 보내고 부정적인 발언을 하며 이중속박 및 빈약한 문제해결 기술을 지닌 의사소통유형을 말한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대해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은 가족들에게 자신의 정보나 의도를 알림으로써 어떤 문제에 대한 오해나 갈등을 해소시켰고 가족구성원 특히,부모-자녀간의 단결을 도모해 준다고 하였고,Korman은 Kibbutz가족 연구에서 부모-자녀간의 수준 높은 대화가 자녀의 정신건강 뿐 만 아니라 학습효과를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3)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중요성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감정, 느낌, 생각, 태도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상호간의 공통적 이해를 도모하는 상호반향적 과정으로 서로 다른 세대간의 차이와 입장, 갈등을 의사소통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각자가 처해 있는 난관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가족에 있어서 의사소통에 대한 필요성이 중대한 의미를 갖지 못하였던 과거와는 달리, 점차 복잡해지고 급변하는 추세의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 고유의 기능중 많은 부분이 사회로 옮겨가고 있어서 가족이 개인으로 분해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수록 가족원의 정서적 안녕을 위한 가족의 기능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의사소통의 기능이 더욱 강조된다.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은 가족원들 간의 감정을 유지, 상호 활동을 조장, 상호 정보 교환과 이해를 가능하게 된다. 자녀에게 있어서는 사회화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더욱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Thomas(1979)는 가족 내에서 부모-자녀관계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하는 매개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이라고 하였다. 의사소통은 태도, 생각, 애정, 사상 등을 전달해주는 인간관계의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가족을 보면 성원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가장 공통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자녀는 부모와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간의 공통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가치를 부모에게 표현하고 자신의 의사를 왜곡됨이 없이 전달하면서 내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아동기까지 지속되는 부모의 의존과 동일시로부터 벗어나 자율성과 책임성을 획득하는 시기다.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청소년들의 욕구와 성급한 자율을 인정하지 않고 부모들의 욕구 사이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시기이므로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부모와 의사소통이 절실히 요구된다.

청소년의 발달에 있어서 개방적 의사소통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의 부모와 자녀간 의사소통은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인 지시, 명령, 훈계, 설교, 비판 등을 하여 행동을 수행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은 자녀의 정서교육에 많은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간의 긴장이나 갈등을 생성하기도 한다. 또한, 부모-자녀간에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갈등이 생기는 것이 대부분의 부모들이 부적합한 언어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과거 답습적 자녀양육 방법과 성인 중심적 인간관으로 자녀를 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자녀 상호간 의사소통에 공통적인 이해가 이루어지려면, 부모가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개방적이고

지지적인 의사소통을 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만이 부모와 자녀간의 세대 차이를 좁혀 주고,갈등을 감소시키며,청소년의 원만한 발달과 바람직한 사회적응을 유도할 수 있다.

4)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변인

1.1 성별

대부분의 연구에서 자녀의 성별은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부모와 더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장호선, 1987). 특히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부모 중 어머니와 더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한다.

한편, 김정희(1988)는 아들이 딸보다 쌍방개방형의 의사소통을 한다고 하였으나, 권혜진(1992)은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1.2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교육수준은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나타났는데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개방적 의사소통을 한다. 김진숙(1983), 옥선화(1985), 오연옥(1987)은 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대화가 잘되고 있음을 지적했고, 이결남(1989), 이금(1993) 등의 연구에서는 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장호선(1987)은 부모의 학력은 자녀와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1.3 부모의 직업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 대화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인간관계 지향적 대화를 많이 사용하고(Gumperz, 1973:234), 부의 직업이 전문, 기술직, 관리, 사무직 종사자일때 판매, 서비스직, 농업, 생산직보다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가 높다(이석경, 1987).

그리고 모의 취업여부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들의 자녀교육은 뚜렷한 차이가 없다. 김진숙(1983)은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있어 모의 취업이 자녀와의 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모의 직업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리라고 예상된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들은 서로 일

치하고 있지 않은데, 비취업모일 경우 자녀와 상호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비율이 높다는 연구(김진숙, 1980; 김정희, 1987; 이정우.김규원, 1987)가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1.4 가정분위기

가정 분위기가 화목하고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는데(최선남, 1990), 가정에 대해 만족할수록 부모와의 긍정적 의사소통 점수가 높고, 불만족할수록 부정적 의사소통 점수가 높아 가정의 분위기에 따라 의사소통 유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양숙, 1995). 그리고 이정우.김규원(1989), 김순옥(1990) 등의 연구에서 가정의 분위기가 화목할수록 어머니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4. 부부갈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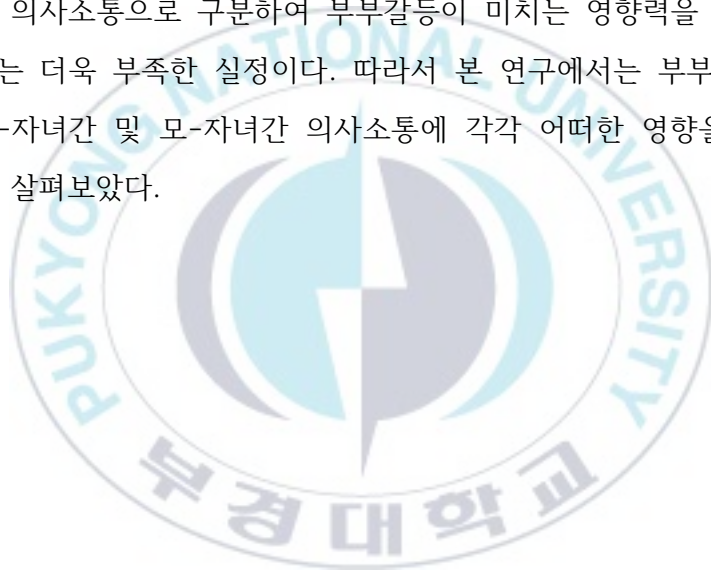
부부관계의 하위영역이 부모-자녀관계와의 연결을 통하여 가족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가족이론들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Belsky, 1981). 부부간 갈등으로 인해 느끼는 부모의 스트레스, 좌절, 무기력감은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

으며(Cohn & Campbell, 1992), 부부간 갈등에서 생겨나는 부정적 감정은 부모-자녀관계에 전이되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부부관계 하위영역과 부모-자녀관계 하위영역의 한 가지로서 부부갈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연합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또한 이 두 가지 요인은 한 가족안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서로간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성을 가진다. 특히 청소년 자녀는 자신이 지각하는 가정의 분위기가 화목할때 불화인 경우 보다 부모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느꼈다. 가정 분위기가 화목할수록 대화의 만족도를 높게 지각하고 부모와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였다.

부부갈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간의 관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가 지각한 부-모간 갈등이 낮을수록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개방적인 반면(노윤옥, 2005), 자녀가 부-모간 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역기능적이고 문제형이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는 부부간의 관계가 건강하고, 가정의 분위기가 화목할수록 부모-자녀간 대화시간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부모-자녀간에 상호이해를 높이며 보다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민주적 가정의 자녀가 부모와 더 친밀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Beaubien(1970)의 견해와 같은 맥락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부부갈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드물고,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부-자녀간 의사소통과 모-자녀간 의사소통으로 구분하여 부부갈등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는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이 부모-자녀간 및 모-자녀간 의사소통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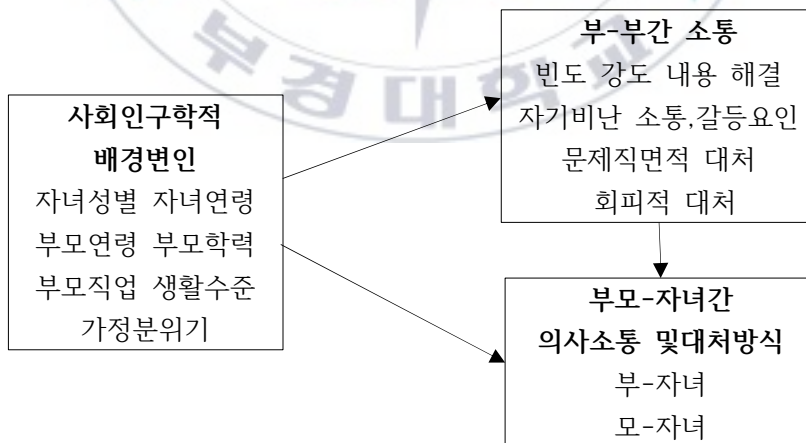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모델

갈등대처방식을 중심으로 부부소통이 부모-자녀간에 미치는 영향의 실증연구를 위한 조사 모형은 다음과 같다.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 부-부간 갈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요소 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은 <그림 Ⅲ-1>과 같다.

<그림 Ⅲ-1>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종속변인들 간의 영향



2.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연구문제 1: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 부-부갈등은 배경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가설1-1: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 부-부갈등은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자녀가 지각한 부모 부부갈등 및 대처방식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2-1: 자녀 지각한 부모 부부갈등 및 대처방식은 부-자녀간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2-2: 자녀 지각한 부모 부부갈등 및 대처방식은 모-자녀간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방법

1)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의 측정 도구는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자녀가 부모 부-부간 갈등에 대한 인식,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부모가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부모 부-부간 갈등요인 및 대처방식을 측정항목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이루어져 있어 각 문항에 대한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 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하였다.

(1) 자녀가 부모 부-부간 갈등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부갈등 척도는 Grych와 그의 동료들(1992)이 개발한 CPIC(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를 권영옥, 이정덕(1997)에 의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빈도, 강도, 내용, 해결, 자기비난 5차원으로 선정하여 자녀가 각 차원에 대해 평가하도록 고안되었다. 부부갈등 척

도의 각 하위영역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① 빈도 : 부부갈등의 노출 정도에 대한 자녀의 지각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싸움의 빈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 ② 강도 : 부부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자녀의 지각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싸움의 강도가 심한 것을 나타낸다.
- ③ 해결 : 부부갈등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었는가에 대한 자녀의 지각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 ④ 내용 : 부부갈등의 내용이 자녀 자신과 관련된 것인지에 대한 자녀의 지각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의 내용이 자녀자신과 관련된다고 지각 하는 정도가 높은 것이다.
- ⑤ 자기비난 : 부부갈등 원인이 자녀 자신에게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의 원인이 자녀자신의 탓이라고 지각하는 정도가 높은 것이다.

본 척도는 응답자가 문항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부부갈등을 따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부-부갈등척도의 5개 하위차원에 대해서 아버지의 내적합치도를 산출한 결과 Cronbach's계수가 0.56 이상의 결과를 나타내고 전체 계수는 0.654, 어머니의 내적합치도를 산출한 결과

Cronbach's계수가 0.70 이상의 결과를 나타내고 전체 계수는 0.804로 나타나 하위척도의 각 문항들이 공통된 차원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Ⅲ-1>과 같다.

<표Ⅲ-1> 자녀가 지각한 부모 부-부간갈등 항목구성 및 신뢰도

하위 요인	부			모		
	항목번호	항목 수	Cronbac h's 계수	항목번호	항목 수	Cronbac h's 계수
빈도	1,6,7,16	4	.630	1,6,7,16	4	.739
강도	5,8,13,18	4	.867	5,8,13,18	4	.757
내용	3,4,17,20	4	.569	3,4,17,20	4	.829
해결	2,9,10,11	4	.873	2,9,10,11	4	.917
자기 비난	12,14,15, 19	4	.836	12,14,15, 19	4	.879
부부 갈등	1~20	21	.654	1~20	21	.804

(2)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 Barnes와 Olson(1982)이 제작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에서 청소년 자녀용 질문지를 중국의 실정에 맞추어 수정한 질문지를 사용하

였다. 이 질문지는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모 각각 15문항이다.

개방형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억압을 느끼지 않으며, 자유로운 감정 하에서 자신의 의사를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것으로 상호간의 감정표현과 정보교환이 솔직하고 자유스러우며, 의사소통을 통한 이해와 만족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문제성이 적음을 뜻한다. 문제형 의사소통은 가족 구성원들 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상호작용이 부정적이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것으로 의사소통을 회피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불신하며 의사소통도 선택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에 대한 두려움 및 경계심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폐쇄적이고 문제성이 많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는 응답자가 문항에 따라 자녀-아버지간 의사소통과 자녀-어머니간 의사소통을 따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검증에 들어가기에 앞서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면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아버지의 경우 개방형 의사소통 문항에서 Cronbach's계수가 0.773, 폐쇄형 의사소통 문항에서 0.540이었으며 어머니의 경우는 개방형 의사소통 문항에서 Cronbach's계

수가 0.672, 폐쇄형 의사소통 문항의 경우 0.531로 나타나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신뢰수준이 나타났다. 갈등대처방식에 따라서 아버지의 경우는 0.698, 어머니의 경우는 0.766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Ⅲ-2>과 같다.

<표Ⅲ-2>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항목구성 및 신뢰도

	부			모		
	항목번호	항목수	Cronbach's 계수	항목번호	항목수	Cronbach's 계수
개방형 의사소통	38,39,40,42,45	5	.773	38,39,40,42,45	5	.672
폐쇄형 의사소통	37,41,43,44	4	.540	37,41,43,44	4	.531
갈등 대처방식	35,36,46,47	4	.698	9,10,12,13	4	.766

(3) 부모가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부모가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 Barnes와 Olson(1982)이 제작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척도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에서 부모용 질문지를 중국의 실정에 맞추어 수정된다. 이 질문지는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모 각각 13문항이다.

개방형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억압을 느끼지 않으며, 자유로운 감정 하에서 자신의 의사를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것으로 상호간의 감정표현과 정보교환이 솔직하고 자유스러우며, 의사소통을 통한 이해와 만족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문제성이 적음을 뜻한다. 문제형 의사소통은 가족 구성원들 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상호작용이 부정적이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것으로 의사소통을 회피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불신하며 의사소통도 선택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에 대한 두려움 및 경계심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는 응답자가 문항에 따라 아버지-자녀간 의사소통과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을 따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검증에 들어가기에 앞서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면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아버지의 경우 개방형 의사소통 문항에서 Cronbach's 계수가 0.631, 폐쇄형 의사소통 문항에서 0.806이었

으며 어머니의 경우는 개방형 의사소통 문항에서 Cronbach's 계수가 0.775, 폐쇄형 의사소통 문항에서 0.707로 나타나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신뢰수준이 나타났다. 갈등대처방식에 따라서 아버지의 경우 Cronbach's 계수가 0.605, 어머니의 경우 Cronbach's 계수가 0.758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Ⅲ-3>과 같다.

<표Ⅲ-3> 부모가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항목구성 및 신뢰도

	항목번호	부		모		
		항목 수	Cronbach's 계수	항목번호	항목 수	Cronbach's 계수
개방형 의사소통	1,2,5,7,8	5	.631	1,2,5,7,8	5	.775
폐쇄형 의사소통	3,4,6,11	4	.806	3,4,6,11	4	.707
갈등대처 방식	9,10,12,13	4	.705	9,10,12,13	4	.758

(4) 부모 부-부간 갈등요인 및 대처방식

Berko, Rosenfeld 및 Samovar(1997)이 제시한 척도를 이영숙, 박경란(2009)이 번안한 것을 최선우(2010)가 수정한 것을 사

용하였다. 본 연구는 부부관계의 갈등대처방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최선우(2010)가 수정한 것을 부부생활에 적절한 표현으로 부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갈등대처방식 척도는 갈등상황에 있을 때 보통 어떻게 배우자에게 반응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남편, 아내 각각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소통 및 갈등요인 척도의 신뢰도계수 Cronbach's는 아버지의 경우는 0.853, 어머니의 경우는 0.667이었다. 대처방식 척도의 신뢰도계수 Cronbach's는 하위 영역별로 "소극적 대처" 경우에는 아버지가 0.913, 어머니가 0.851이었으며 '적극적 대처' 경우에는 아버지가 0.913, 어머니가 0.890이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Ⅲ-4>과 같다.

<표Ⅲ-4> 부모 부-부간 소통, 갈등요인 및 대처방식 항목구성 및 신뢰도

아버지				어머니		
	항목번호	항목 수	Cronbach's 계수	항목번호	항목 수	Cronbach's 계수
소통, 갈등 요인	14, 15, 16, 21, 22, 23, 24	7	.853	14, 15, 16, 21, 22, 23, 24	7	.667
문제직면적 대처	17, 18, 19, 28	4	.913	17, 18, 19, 28	4	.851
회피적	20, 25, 26	4	.913	20, 25, 26	4	.890

대처	,27			,27		
----	-----	--	--	-----	--	--

2)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의 설문 항목은 총 128문항으로 이루어졌는데 크게 여섯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6문항이며 선택형 문항을 사용하여 자녀의 성별,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가정 경제 수입에 따라 생활 수준, 가정 분위기를 조사하였다.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은 부모 각각 20문항 총 40문항으로 질문하여 빈도, 강도, 내용, 해결, 자기비난등을 알아보았다.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갈등대처방식은 자녀-부 13문항과 자녀-모 13문항, 총 26문항으로 질문하여 자녀-부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 자녀-모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 갈등대처방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부모가 지각하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갈등대처방식은 부-자녀 13문항과 모-자녀 13문항, 총 26문항으로 질문하여 부-자녀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 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 갈등대처방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부 두 사람 각각 갈등요인, 대처방식등

부부갈등에 대해 총 30문항으로 물어본다.

<표 Ⅲ-5> 설문지 구성

분석내용	측정 변인		항목 번호	항목 수
사회인구학적 특성	자녀성별,부모 학력,부모직업,생활 수준,가정 분위기		34~39	6
지각한 부부갈등	빈도		1,6,7,16	40
	강도		5,8,13,18	
	내용		3,4,17,20	
	해결		2,9,10,11	
	자기비난		12,14,15,19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개방형 의사소통		24,25,26,28,31	26
	문제형 의사소통		23,27,29,30	
	대처방식		21,22,32,33	
부모가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개방형 의사소통		1,2,5,7,8	26
	문제형 의사소통		3,4,6,11	
	대처방식		9,10,12,13	
부부소통,갈등 요인,대처방식	갈등요인		14,15,16,21,22,23,24	30
	대처 방식	문제직면적 대처	17,18,19,28	
		회피적 대처	20,25,26,27	

3)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갈등대처방식을 중심으로 부부소통이 부모-자녀 간 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국에서 거주한 중국인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특히 중국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로 주요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청소년기는 다른 발달과정에 비해 생후 첫 1,2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변화가 큰 시기로 급작스럽게 변하는 신체적 외모와 생물학적 성숙, 새로운 역할과 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면서 심리적으로 많은 갈등과 불안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중국 사천성 청두시(CHENG DU)에 위치한 고등학교 방문 협조를 요청 후 2017년 2월 6일부터 2월 13일까지 7일간 실시되었다. 조사 대상들은 학자녀와 학부모 포함하여, 학자녀편은 현장조사하고 학부모편은 숙제로 회수를 통해서 조사하였다. 또한 정상적 1인자녀 가정의 부부갈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양쪽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대상만을 선정하였으므로 조사대상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재가 미흡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300부를 본 연구의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Window용 SPSS 21.0 버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절차를 거쳤다.

첫째, 측정도구의 작성을 위하여 문항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부모는 부-부간 갈등요인 및 대처방식,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t-test검증, F-test(one-way ANOVA)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배경변인에 따라 자녀가 부모 부-부간 갈등에 경향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알아보기 위해 빈도,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차이검증을 위해 t-test, F-test(one-way ANOVA)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각 변인 간 관계와 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각각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분석결과

1) 사회인구학적 특성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설문 응답자들은 최종 1인자녀 가정 100개, 총 300명의 응답자의 설문지 300개를 표본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응답자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분석은 자녀의 성별, 부모의 연령, 학력, 직업과 가정 경제 수입에 따라 생활수준, 가정 분위기로 나누었고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표 IV-1> 사회인구학적 빈도 분석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자녀성별	남학생	49	49.0	49.0
	여학생	51	51.0	100.0
부 학력	고등학교(이하)	10	10.0	10.0
	3년제 전문대	29	29.0	39.0
	4년제 대학교	45	45.0	84.0
	대학원(이상)	16	16.0	100.0
모 학력	고등학교(이하)	22	22.0	22.0

	3년제 전문대	34	34.0	56.0
	4년제 대학교	38	38.0	94.0
	대학원(이상)	6	6.0	100.0
부 직업	일반작업	19	19.0	19.0
	사무/경영관리직	45	45.0	64.0
	전문/자유직	36	36.0	100.0
모 직업	일반작업	30	30.0	30.0
	사무/경영관리직	35	35.0	65.0
	전문/자유직	25	25.0	90.0
	부직/조기퇴직/주부	10	10.0	100.0
가정분위기	비교적 화목	45	45.0	45.0
	보통	44	44.0	89.0
	비교적 안 화목	11	11.0	100.0
생활수준	중상	70	70.0	70.0
	중하	30	30.0	100.0

표본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IV-1)과 같이 연구대상 학자녀는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볼 때, 남학생이 49명(49%), 여학생이 51명(51%)으로 나타났으며, 남여학생간의 성비는 거의 같다.

부모 학력별 분포중에서 아버지의 학력은 4년제 대학교졸업이 45명(4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그 다음으로 3년제 전문대학교졸업이 29명(29%), 대학원졸업이 16명(16%)으로 나타났고 고등학교졸업(이하)가 10명(10%)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은 4년제 대학교졸업이 38명(38%), 3년제 전문대학교졸업도 34명(34%)이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졸업(이하)이 22명

(22%), 대학원졸업이 6명(6%)이 이어 나타났다.

부모 직업별 분포중에서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경영관리직이 45명(4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자유직이 36명(36%)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일반작업이 19명(19%)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은 사무/경영관리직이 35명(3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작업이 30명(30%), 전문/자유직이 25명(25%)이 이어 나타났다. 특히는 어머니의 직업중에서 무직/조기퇴직/주부가 10명(10%)으로 나타났는데 아버지의 직업중에서 무직/조기퇴직/주부가 0명(0%)으로 나타났다.

가정 분위기별로 "비교적 화목"가 45%이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이 44%, "비교적 안 화목"가 11%으로 이었다. 가정 경제 수입에 따라 생활수준별로는 "중상" 수준이 70%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중하" 수준이 30%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응답자들의 특성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청소년 자녀가 둔 1인 자녀 가정이다. 청소년기는 다른 발달과정에 비해 생후 첫 1,2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변화가 큰 시기로 급작스럽게 변하는 신체적 외모와 생물학적 성숙, 새로운 역할과 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면서 심리적으로 많은 갈등과 불안을 가지게 된다. 이 과정은 생후 첫 1,2년을 제외하고 매우 중요한 시기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특성

은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2) 부모 부부간 소통, 갈등요인 및 대처방식 분석

가. 부모 부부간 소통, 갈등요인에 대한 분석

<표 IV-2> 부모 - 부부간 소통, 갈등요인

		평균(표준편차)	t	유의확률
대화시간 부족	아버지	3.08(1.25)	2.501	0.000
	어머니	3.13(1.17)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음	아버지	3.12(0.96)	2.825	0.000
	어머니	3.57(1.13)		
상대방과 대화가 잘 안 됨	아버지	3.85(1.11)	3.024	0.000
	어머니	3.15(1.05)		
자녀의 교육, 양육방법문제	아버지	3.56(1.07)	2.225	0.000
	어머니	3.82(1.01)		
경제적 어려움 문제	아버지	2.73(1.21)	2.013	0.000
	어머니	2.76(1.04)		
인생관, 가치관 차이	아버지	2.66(1.09)	2.012	0.000
	어머니	2.65(1.07)		
성격 차이	아버지	2.61(1.12)	2.316	0.000
	어머니	2.70(1.03)		

부모가 부부간 소통 정도를 알아본 결과, "대화시간 부족"의 경우 아버지(M=3.08)와 어머니(M=3.13)가 차이가 없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음" 경우는 아버지(M=3.12)보다 어머니(M=3.57)가 많이 이루어지고 볼 수 있다. "상대방과 대화가 잘 안 됨" 경우 어머니(M=3.15)보다 아버지(M=3.85)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갈등요인 정도를 알아본 결과, "자녀의 교육, 양육방법문제" 아버지(M=3.56, $p<0.05$)와 어머니(M=3.82, $p<0.05$)가 다 매우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 문제", "인생관, 가치관 차이", "성격차이"등 요인은 부모는 거의 같은 평균 점수가 나타났다. 즉, 부모는 부부간 소통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고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 본질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남자와 여자는 환경에 반응하는 방식, 대화 방식과 대화 내용, 관심과 욕구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나. 부모 부부간 갈등 대처방식 에 대한 분석

<표 IV-3> 부모 - 부부간 갈등 대처방식

		평균(표준편차)	t	유의확률
--	--	----------	---	------

문제직면적 대처	아버지	3.03(1.17)	2.577	0.000
	어머니	2.57(1.02)		
회피적 대처	아버지	2.75(1.24)	2.212	0.000
	어머니	3.02(1.22)		

부모가 부부간 갈등 대처방식 정도를 알아본 결과, 문제직면적 대처방식의 경우는 어머니($M=2.57, p<0.05$)보다 아버지($M=3.03, p<0.05$)의 평균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회피적 대처방식의 경우는 아버지($M=2.75, p<0.05$)보다 어머니($M=3.02, p<0.05$)의 평균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즉, 부모는 부부간 갈등을 생겼을 때 아버지는 문제직면적 대처하고 즉시 해결하고, 어머니는 보통 문제를 즉시 해결하디 않고 회피하니 부모는 갈등 대처방식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3).

3) 부모가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부모가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전반적인 경향

<표 IV-4> 부모가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성별	남학생	여학생
--	----	-----	-----

		평균 (표준편차)	t	유의 확률	평균 (표준편차)	t	유의 확률
개방형	아버지	2.64(1.14)	-1.3	0.04	2.31(1.58)	-5.4	0.00
소통	어머니	2.21(0.87)	81	8	2.96(1.11)	59	0
문제형	아버지	3.09(1.32)	2.33	0.00	2.64(0.89)	3.36	0.03
소통	어머니	2.99(1.23)	1	9	2.16(1.29)	6	4

부모가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정도를 알아본 결과, 전반적으로 개방형 의사소통의 경우는 부-여학생보다 부-남학생 의사소통 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모-남학생보다 모-여학생 의사소통 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표 IV-4). 문제형 의사소통의 경우는 부모-여학생보다 부모-남학생 의사소통 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응표본 t검증 결과, 개방형 의사소통에서 남학생의 경우는 어머니(M=2.21)보다 아버지(M=2.64)의 평균 점수가 더 높았고, 유의한 결과 차이($t=-1.381, p<0.05$)가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는 아버지(M=2.31)보다 어머니(M=2.96)의 평균 점수가 더 높았고, 유의한 결과 차이($t=-5.459, p<0.05$)가 나타났다. 문제형 의사소통에서 부모-여학생보다 부모-남학생의 평균 점수가 더 높았고, 유의한 결과 차이($t=2.331, p<0.05$)가 나타났다. 즉, 아버지-남학생보다는 어머니-여학생 개방형 의사소통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자녀간의 문제형 의사소통에서는 부모-여학생보다 부모

-남학생의 평균 점수가 더 높았으나 부모-남학생, 여학생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지각한 부모-자녀간 갈등 대처방식의 전반적인 경향

<표 IV-5> 부모가 지각한 부모-자녀간 갈등 대처방식

	성별	남학생			여학생		
		평균 (표준편차)	t	유의 확률	평균 (표준편차)	t	유의 확률
문제직면	아버지	2.90(1.03)	2.1	0.00	2.49(0.85)	4.1	0.00
적대적	어머니	2.49(1.11)	20	1	3.09(1.01)	27	0
회피적	아버지	2.56(0.90)	1.0	0.04	2.83(0.98)	-0.	0.00
대처	어머니	2.35(0.87)	91	3	2.70(1.07)	07	0

부모가 지각한 부모-자녀간 갈등 대처방식 정도를 알아본 결과, 전반적으로 문제직면적 대처의 경우는 부-여학생(M=2.49)보다 부-남학생(M=2.90)의 문제직면적 대처 더 이루어지고 모-남학생(M=2.49)보다 모-여학생(M=3.09)의 문제직면적 대처 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표 IV-5). 회피적 대처의 경우는 부모-여학생보다 부모-남학생 회피적 대처가 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연구문제에 대한 가설 여부

1)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에 대한 배경변수별 차이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을 자녀의 성별, 부모학력, 부모직업, 경제 수입에 따라 생활수준, 가정분위기로 나누어서 부부갈등의 하위요인과 부부갈등 전체로 살펴보았다.

가. 자녀 성별에 따른 차이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은 성별에 따라 남학생($M=2.67$)이 여학생($M=12.54$)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0.593$, $p<0.05$). 전반적으로 모든 하위영역에 있어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조금 높은 평균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남학생은 부부갈등 상황을 조금 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위영역 중 부부갈등의 원인이 자신의 탓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비난 영역’($t=2.045$, $p<0.05$)과 부부갈등 상황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을 많이 지각하는 정도인 ‘해결’($t=-2.034$, $p<0.05$)에 있어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갈등을 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IV-6).

<표 IV-6> 자녀 성별에 따른 부모-부부갈등 인식차이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빈도	남학생	49	3.00	1.06	1.465	0.019
	여학생	51	2.74	0.80		
강도	남학생	49	1.99	1.01	1.673	0.052
	여학생	51	1.67	0.90		
내용	남학생	49	2.19	0.93	0.645	0.030
	여학생	51	2.08	0.80		
해결	남학생	49	2.95	0.92	-2.034	0.010
	여학생	51	2.34	0.99		
자기 비난	남학생	49	2.60	1.16	2.045	0.042
	여학생	51	2.35	1.19		
부부 갈등	남학생	49	2.67	1.06	0.593	0.027
	여학생	51	2.54	0.97		

나. 부모의 학력에 따른 차이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부부갈등 지각에의 차이는 없지만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빈도" ($F=7.015$, $p<0.05$)와 "강도" ($F=2.252$, $p<0.05$)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의 경우는 대학원졸업($M=2.50$), 4년제 대학교졸업($M=2.66$), 3년제 전문대졸업($M=2.91$) 집단보다 고등학교졸업($M=3.06$), 중학교졸업($M=3.50$) 집단에서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강도"의 경우는 대학원졸업($M=1.27$), 4년제 대학교졸업($M=1.43$) 집단보다 고등학교졸업($M=3.34$), 중학교졸업($M=3.25$) 집단에서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부부갈등의 빈도와

강도가 자녀 자신과 관련된다고 지각되는 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빈도"와 "강도" 영역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는 전반적으로 아버지의 학력이 낮을수록 부부갈등 상황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폭력적인 행동이 많이 나타나고, 부부간의 안정성이 낮기 때문일 것으로 본다(표 IV-7).

<표 IV-7>부학력에 따른 부부갈등인식차이

	학력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빈 도	고등학교졸업(이하	10	3.28	0.80	7.015	0.013
	3년제 전문대졸업	29	2.91	0.87		
	4년제 재학교졸업	45	2.66	0.85		
	대학원졸업(이상	16	2.50	0.74		
강 도	고등학교졸업(이하	10	3.28	0.79	2.252	0.000
	3년제 전문대졸업	29	2.23	0.93		
	4년제 재학교졸업	45	1.43	0.78		
	대학원졸업(이상	16	1.27	0.32		
내 용	고등학교졸업(이하	10	2.33	0.75	1.770	0.011
	3년제 전문대졸업	29	2.14	0.78		
	4년제 재학교졸업	45	1.89	0.82		
	대학원졸업(이상	16	2.15	0.83		
해 결	고등학교졸업(이하	10	3.53	0.65	1.241	0.000
	3년제 전문대졸업	29	2.59	0.80		
	4년제 재학교졸업	45	1.75	0.80		
	대학원졸업(이상	16	2.09	0.67		

자	고등학교졸업(이하	10	3.40	0.79	1.314	0.000
기	3년제 전문대졸업	29	3.11	1.07		
비	4년제 재학교졸업	45	2.12	0.88		
난	대학원졸업(이상	16	1.58	0.63		
부	고등학교졸업(이하	10	3.89	0.71	1.240	0.032
부	3년제 전문대졸업	29	2.95	0.88		
갈	4년제 재학교졸업	45	2.32	0.80		
등	대학원졸업(이상	16	2.26	0.67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자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2.114$, $p<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졸업($M=1.62$), 4년제 대학교졸업($M=1.81$), 3년제 전문대졸업($M=2.24$) 집단보다 고등학교졸업($M=3.066$), 중학교졸업($M=3.88$) 집단의 경우 부부갈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 중 ‘해결’에서는 유의미한 차이($F=2.502$, $p<0.05$)가 나타났는데 중학교졸업에서 부부갈등의 대처이 자녀 자신과 관련된 것이라 가장 높게 지각했는 결과이다. 다른 하위영역에 있어서도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부부갈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것은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차이와 비슷한 경향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표 IV-8).

<표 IV-8>모학력에 따른 부부갈등인식차이

	학력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빈 도	고등학교졸업(이하	22	4.45	0.61	1.390	0.004
	3년제 전문대졸업	34	3.93	0.78		
	4년제 재학교졸업	38	3.08	1.38		
	대학원졸업(이상	6	2.71	0.78		
강 도	고등학교졸업(이하	22	3.02	0.90	1.684	0.000
	3년제 전문대졸업	34	2.43	0.92		
	4년제 재학교졸업	38	1.54	0.65		
	대학원졸업(이상	6	1.44	0.41		
내 용	고등학교졸업(이하	22	4.20	0.59	1.522	0.000
	3년제 전문대졸업	34	3.85	0.82		
	4년제 재학교졸업	38	2.91	0.77		
	대학원졸업(이상	6	2.87	0.60		
해 결	고등학교졸업(이하	22	3.23	0.61	2.502	0.000
	3년제 전문대졸업	34	2.63	0.75		
	4년제 재학교졸업	38	1.93	0.73		
	대학원졸업(이상	6	1.63	0.21		
자 기 비 난	고등학교졸업(이하	22	4.13	0.90	1.598	0.000
	3년제 전문대졸업	34	2.43	1.02		
	4년제 재학교졸업	38	2.11	0.92		
	대학원졸업(이상	6	1.58	0.55		
부 부 갈 등	고등학교졸업(이하	22	3.77	0.71	2.114	0.000
	3년제 전문대졸업	34	2.24	0.80		
	4년제 재학교졸업	38	1.81	0.89		
	대학원졸업(이상	6	1.62	0.46		

다. 부모의 직업에 따른 차이

전체적으로는 아버지가 사무/경영관리직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보다 일반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부부갈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직업에 따라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은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F=3.864, 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사무/경영관리직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보다 일반작업직 종사하는 경우 부부갈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도"($F=6.801, p<0.05$), "해결"($F=4.395, p<0.05$), "자기비난"($F=4.004, p<0.05$) 영역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가져왔다. 즉 부의 직업이 일반작업직 일수록 자녀는 부부갈등이 더 자주 발생한다고 지각하였고 갈등상황에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심각하게 지각하였다. 이는 아버지의 직업에 따른 부부갈등 지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본다(표 IV-9).

<표 IV-9>부직업에 따른 부부갈등 인식차이

	직업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빈 도	일반작업직	19	3.42	1.09	1.468	0.017
	사무/경영관리직	45	3.10	0.94		
	전문/자유직	36	2.72	0.80		
강 도	일반작업직	19	2.84	0.90	6.801	0.005
	사무/경영관리직	45	2.05	0.86		
	전문/자유직	36	1.57	0.76		

내 용	일반작업직	19	2.74	1.03	1.998	0.076
	사무/경영관리직	45	2.25	0.73		
	전문/자유직	36	2.08	1.01		
해 결	일반작업직	19	2.49	0.87	4.395	0.001
	사무/경영관리직	45	2.91	0.63		
	전문/자유직	36	3.32	0.97		
자 기 비 난	일반작업직	19	2.85	1.00	4.004	0.001
	사무/경영관리직	45	2.87	0.91		
	전문/자유직	36	2.17	1.03		
부 부 갈 등	일반작업직	19	2.89	1.05	3.864	0.042
	사무/경영관리직	45	2.42	0.83		
	전문/자유직	36	2.29	0.83		

어머니의 직업에 따라서는 자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은 유의미한 차이($F=6.313$, $p<0.05$)가 나타났다. 전문/자유직($M=2.32$)일 경우 보다 부직/조기퇴직자/주부($M=2.50$)일 경우 부부갈등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 하위영역에서는 "해결"($F=5.097$, $p<0.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부직/조기퇴직자/주부($M=2.93$)에 종사할 경우 부부싸움의 "해결"을 가장 낮게 지각하였다. 하위영역에서는 "내용"에서 유의미한 차이($F=6.011$, $p<0.05$)가 나타났는데 부직/조기퇴직자/주부 경우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IV-10).

<표 IV-10>모직업에 따른 부부갈등 인식차이

	직업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빈 도	일반작업직	30	2.95	1.34	4.661	0.024
	사무/경영관리직	35	3.14	1.49		
	전문/자유직	25	2.91	0.96		
	부직/조기퇴직/주부	10	3.15	0.81		
강 도	일반작업직	30	2.93	1.01	2.112	0.000
	사무/경영관리직	35	2.72	1.16		
	전문/자유직	25	2.02	0.94		
	부직/조기퇴직/주부	10	3.00	1.13		
내 용	일반작업직	30	3.89	0.86	6.011	0.000
	사무/경영관리직	35	2.99	0.68		
	전문/자유직	25	3.58	0.99		
	부직/조기퇴직/주부	10	2.08	0.82		
해 결	일반작업직	30	2.48	0.72	5.097	0.000
	사무/경영관리직	35	2.44	0.71		
	전문/자유직	25	2.42	0.89		
	부직/조기퇴직/주부	10	2.93	0.71		
자 기 비 난	일반작업직	30	3.67	0.98	4.593	0.000
	사무/경영관리직	35	2.12	0.92		
	전문/자유직	25	3.07	1.18		
	부직/조기퇴직/주부	10	2.32	1.03		
부 부 갈 등	일반작업직	30	2.37	0.76	6.313	0.010
	사무/경영관리직	35	2.43	0.88		
	전문/자유직	25	2.32	0.82		
	부직/조기퇴직/주부	10	2.50	0.75		

라. 생활수준에 부부갈등 인식 차이

생활수준에 따른 부부갈등 인식 차이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중상류 이상의 집단보다 중하류 이하의 집단이 갈등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생활수준에 따라 지녀가 인식한 부부갈등에는 유의한 차이($F=4.302$, $p<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상류 이상의 경우보다 중하류 이하의 경우에서 부부갈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하위영역에서도 "빈도"($F=7.034$, $p<0.05$), "해결"($F=5.976$, $p<0.05$)에 있어서도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IV-11).

<표 IV-11>생활수준에 따른 부부갈등 인식차이

	생활수준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빈도	중상	70	2.63	0.85	7.034	0.034
	중하	30	3.52	1.01		
강도	중상	70	2.54	0.79	1.579	0.002
	중하	30	3.75	0.88		
내용	중상	70	2.63	0.84	1.478	0.026
	중하	30	3.24	0.79		
해결	중상	70	3.33	0.89	5.976	0.000
	중하	30	1.95	0.91		
자기 비난	중상	70	2.72	1.13	1.201	0.000
	중하	30	2.69	1.17		
부부 갈등	중상	70	2.79	0.85	4.302	0.049
	중하	30	3.05	0.86		

마. 가정 분위기에 따른 부부갈등 인식차이

가정 분위기에 따른 부부갈등 인식 차이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비교적 화목"의 집단보다 "보통"이하의 집단이 갈등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분위기에 따라 자녀가 인식한 부부갈등에는 유의한 차이($F=8.849$, $p<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교적 화목"의 경우보다 "보통"의 경우에서 부부갈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하위영역에서도 "빈도"($F=6.672$, $p<0.05$), "내용"($F=4.987$, $p<0.05$), "해결"($F=3.131$, $p<0.05$), "자기비난"($F=5.664$, $p<0.05$)에 있어서도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IV-12).

<표 IV-12>가정 분위기에 따른 부부갈등 인식차이

	분위기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빈 도	비교적 화목	45	2.98	0.71	6.672	0.049
	보통	44	3.45	0.89		
	비교적 안 화목	11	4.03	0.62		
강 도	비교적 화목	45	1.88	0.51	1.261	0.003
	보통	44	2.32	1.32		
	비교적 안 화목	11	3.65	0.56		
내 용	비교적 화목	45	2.62	0.80	4.987	0.049
	보통	44	2.97	0.90		
	비교적 안 화목	11	3.06	0.59		
해 결	비교적 화목	45	3.65	0.71	3.131	0.000
	보통	44	2.69	0.85		

	비교적 안 화목	11	2.01	0.62		
자기 비 난	비교적 화목	45	1.89	0.85	5.664	0.000
	보통	44	3.08	1.13		
	비교적 안 화목	11	3.54	1.03		
부 부 갈 등	비교적 화목	45	2.53	0.74	8.849	0.022
	보통	44	2.90	1.02		
	비교적 안 화목	11	3.11	0.72		

2) 배경변수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갈등대처방식 차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자녀성별, 부모학력, 부모직업, 생활수준, 가정분위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가. 자녀 성별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갈등대처방식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갈등대처방식 차이를 살펴본 결과(표 IV-13). 먼저, 아버지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에 있어서 여학생($M=2.49$)에 있는 경우보다는 남학생($M=2.80$)의 경우가 개방형 의사소통이 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어머니와의 개방형형 의사소통의 경우 남학생($M=2.58$)보다 여학생($M=3.22$)의 경우가 개방형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382$, $p<0.05$). 즉 여학생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남학생은 어머니보다 아버지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아버지와의 문제직면적 대처에 있어서 여아($M=2.60$)에 있는 경우보다는 남학생($M=2.76$)의 경우가 문제직면적 대처가 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어머니와의 문제직면적 대처의 경우 남학생($M=2.22$)보다 여학생($M=3.64$)의 경우가 문제직면적 대처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8.019$, $p<0.05$). 아버지와의 회피적 대처에 있어서 남학생($M=2.92$)과 여학생($M=2.83$)의 평균점수가 차이가 없지만, 어머니와의 회피적 대처에 있어서 여학생($M=2.68$)보다 남학생($M=3.05$)의 평균점수가 더 높다. 즉, 남학생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와의 회피적 대처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13> 자녀성별에 따른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갈등대처방식**

(N=200)

	성별	아버지			어머니		
		평균 (표준편차)	t	유의 확률	평균 (표준편차)	t	유의 확률

개방형 의사소통	남학생	2.80(1.12)	1.4	0.08	2.58(0.88)	-3.	0.00
	여학생	2.49(0.94)	14	6	3.22(0.87)	382	0
문제형 의사소통	남학생	3.03(1.24)	-1. 81	0.01	3.52(0.87)	3.5	0.02
	여학생	2.59(1.28)	0	2	2.54(1.01)	75	7
문제직면 적대처	남학생	2.76(1.15)	-1. 68	0.01	2.22(0.75)	-8.	0.00
	여학생	2.60(0.93)	4	0	3.64(1.06)	019	0
회피적 대처	남학생	2.92(1.15)	-1. 70	0.00	3.05(0.89)	1.6	0.00
	여학생	2.83(1.03)	8	6	2.68(1.22)	85	0

나. 부모 학력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갈등대처방식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자녀와 부모와의 의사소통(표 IV-14).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버지, 어머니 모두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잘 이루어지고 있다. 반대로 아버지의 학력이 낮을수록 아버지, 어머니 모두와 문제형 의사소통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자녀가 부모와의 갈등대처방식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버지, 어머니 모두와 문제직면적대처를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버지의 학력이 낮을수록 아버지, 어머니 모두와 회피적 대처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부학력에 따른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갈등대처방식

(N=200)

	부학력	아버지			어머니		
		평균 (표준편차)	F	유의 확 률	평균 (표준편차)	F	유의 확 률
개방 형 의사 소통	고등학교(이하	2.22(0.78)			2.52(1.01)		
	전문대학교	2.22(0.95)	5.9	0.1	2.81(1.05)	1.3	0.1
	대학교	2.94(0.97)	97	29	3.17(1.04)	54	53
	대학원 이상	2.94(0.83)			3.71(0.76)		
문제 형 의사 소통	고등학교(이하	3.53(1.27)			3.74(0.92)		
	전문대학교	3.13(1.03)	4.	0.0	3.31(1.52)	5.	0.0
	대학교	2.50(1.15)	18	71	2.63(0.96)	33	38
	대학원 이상	2.62(0.97)	4		2.20(0.99)	6	
문제 직면 적 대처	고등학교(이하	2.21(0.73)			2.05(1.14)		
	전문대학교	2.32(0.87)	2.8	0.0	2.73(1.01)	7.6	0.0
	대학교	2.93(0.98)	43	56	3.66(1.13)	05	00
	대학원 이상	2.98(1.02)			3.43(0.61)		
회피 적 대처	고등학교(이하	2.99(0.98)			3.06(0.78)		
	전문대학교	3.00(0.97)	8.9	0.0	2.86(1.66)	6.8	0.0
	대학교	2.97(1.13)	88	00	2.78(1.03)	21	05
	대학원 이상	3.06(1.09)			3.33(1.71)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부모와의 의사소통(표 IV-15)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모두와 개방형 의사소통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개방형 의사소통이 더 많이 이

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어머니가 대학교졸업이상일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아버지, 어머니와 자녀가 개방형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자녀가 부모와의 갈등대처방식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버지, 어머니 모두와 문제직면적대처를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버지의 학력이 낮을수록 아버지, 어머니 모두와 회피적 대처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5>모학력에 따른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갈등대처방식

(N=200)

	모학력	아버지			어머니		
		평균 (표준편차)	F	유의 확 률	평균 (표준편차)	F	유의 확 률
개방 형 의사 소통	고등학교(이하	2.03(0.94)			2.21(0.94)		
	전문대학교	2.34(0.78)	4.9	0.0	2.79(1.01)	2.1	0.0
	대학교	2.84(0.77)	88	92	3.09(1.12)	48	13
	대학원 이상	2.95(0.85)			3.15(0.69)		
문제 형 의사 소통	고등학교(이하	3.69(0.95)			3.51(1.01)		
	전문대학교	3.01(1.00)	3.8	0.0	3.28(1.52)	4.7	0.0
	대학교	2.67(1.10)	49	69	2.55(0.79)	98	32
	대학원 이상	2.64(0.91)			2.32(0.89)		

문제	고등학교(이하	2.28(1.34)			2.66(1.00)		
직면	전문대학교	2.68(0.77)	2.4	0.0	2.65(1.01)	5.0	0.0
적	대학교	2.93(0.88)	69	47	3.06(1.13)	98	01
대처	대학원 이상	2.98(1.09)			3.45(0.61)		
회피	고등학교(이하	2.97(1.02)			3.01(0.77)		
적	전문대학교	2.78(0.87)	7.9	0.0	2.76(1.03)	5.9	0.0
대처	대학교	2.71(1.12)	68	01	2.69(1.04)	12	03
	대학원 이상	2.40(1.01)			2.39(1.15)		

다. 부모 직업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갈등대처방식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서 아버지와의 개방형 의사소통 관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6). 아버지가 사무직에 종사할 경우 개방형 의사소통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아버지가 자영업과 농업,어업,임업에 종사하는 경우 개방형 의사소통은 낮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대로, 아버지가 자영업과 농업,어업,임업에 종사하는 경우 문제형 의사소통은 높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버지가 사무직에 종사할 경우 문제직면적 대처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농업,어업,임업에 종사하는 경우 회피적 대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16>부직업에 따른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갈등대처방식

(N=200)

	부직업	아버지			어머니		
		평균 (표준편차)	F	유의 확률	평균 (표준편차)	F	유의 확률
개방 형 의사 소통	일반작업	2.15(0.87	2.9 37	0.04 9	2.41(0.88	2.1 48	0.01 9
	사무/경영관	2.95(0.99			2.95(0.95		
	리직	2.73(0.98			2.89(1.01		
	전문/자유직						
문제 형 의사 소통	일반작업	3.30(1.24	2.0 25	0.02 2	3.15(0.77	3.2 92	0.06 8
	사무/경영관	2.64(1.02			2.65(0.92		
	리직	2.67(1.00			2.89(1.03		
	전문/자유직						
문제 직면 적 대처	일반작업	1.85(0.81	3.6 45	0.00 2	2.04(0.99	4.3 78	0.00 0
	사무/경영관	2.54(0.89			3.15(1.11		
	리직	2.89(0.97			3.01(1.14		
	전문/자유직						
회피 적 대처	일반작업	2.89(1.23	3.5 28	0.00 3	2.92(0.87	3.9 88	0.00 2
	사무/경영관	2.79(0.88			2.83(1.14		
	리직	2.69(0.90			2.67(1.02		
	전문/자유직						

어머니의 직업 종류에 따라서는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Ⅳ-17). 어머니가 경영관리직에 종사할 경우 개방형 의사소통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어머니가 무직/조기퇴직자/주부에 종사하는

경우 개방형 의사소통은 낮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어머니가 무직/조기퇴직자/주부에 종사하는 경우 문제형 의사소통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머니가 경영관리직에 종사할 경우 문제직면적 대처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농업,어업,임업과 무직/조기퇴직자/주부에 종사하는 경우 회피적 대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V-17>모직업에 따른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갈등대처방식

(N=200)

	모직업	아버지			어머니		
		평균 (표준 편차)	F	유의 확 률	평균 (표준 편차)	F	유의 확 률
개방 형 의사 소통	일반작업	2.25(0.97			2.30(0.98		
	사무/경영관리직	2.62(0.98	2.4	0.0	2.68(0.86	2.5	0.0
	전문/자유직	2.99(0.90	35	21	3.09(1.01	49	13
	무직/조기퇴직/ 주부	2.02(0.57			2.30(0.75		
문제 형 의사 소통	일반작업	3.35(1.01			2.98(0.98		
	사무/경영관리직	2.64(0.97	2.1	0.0	2.82(0.97	3.1	0.0
	전문/자유직	2.56(1.09	43	20	2.59(0.98	79	54
	무직/조기퇴직/ 주부	3.98(0.99			3.15(1.01		

문제 직면 적 대처	일반작업	1.79(0.83			1.89(0.87		
	사무/경영관리직	2.49(0.98	3.4	0.0	2.55(1.01	4.4	0.0
	전문/자유직	2.99(1.02	23	03	3.11(0.99	56	01
	무직/조기퇴직/ 주부	2.01(0.79			2.10(0.82		
회피 적 대처	일반작업	2.87(1.01			2.98(0.89		
	사무/경영관리직	2.93(0.88	2.9	0.0	2.69(1.02	3.8	0.0
	전문/자유직	2.45(0.89	89	03	2.28(0.98	79	01
	무직/조기퇴직/ 주부	3.55(0.58			3.19(0.85		

라. 생활수준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갈등대처방식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부모와의 모든 의사소통 관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Ⅳ-18). 의사소통에 있어 생활수준이 중하류이하인 경우보다 중상류이상인 경우 아버지와 개방형 의사소통($F=4.307$)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어머니와도 개방형 의사소통($F=7.349$)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반대로 생활수준이 중하류 이하일 경우 부모 모두와의 문제형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갈등대처방식의 경우는 생활수준이 중하류이하인 경우보다 중상류이상인 경우 아버지와문제작면적 대처($F=4.054$)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어머니와도 문제직면적 대처($F=6.267$)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생활수준이 중

하류 이하일 경우 부모 모두와의 회피적 대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V-18>생활수준에 따른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갈등대처방식

(N=200)

	생활 수준	아버지			어머니		
		평균 (표준편차)	F	유의 확률	평균 (표준편차)	F	유의 확률
개방형 의사소통	중상	2.83(1.02)	4.3	0.02	3.01(0.96)	7.3	0.09
	중하	2.35(0.90)	07	6	2.80(0.58)	49	7
문제형 의사소통	중상	2.69(0.93)	2.7	0.02	2.62(0.96)	5.8	0.07
	중하	3.41(1.06)	95	5	3.72(0.90)	01	3
문제직면적 대처	중상	2.92(0.89)	4.0	0.02	2.78(1.17)	6.2	0.00
	중하	2.12(0.82)	54	5	2.58(0.93)	67	2
회피적 대처	중상	2.10(1.03)	5.3	0.00	2.56(1.12)	6.1	0.00
	중하	2.82(1.02)	85	4	2.87(1.03)	27	1

마. 가정분위기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자녀간 의사소통 및 갈등대처방식

가정분위기에 따라서는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표 IV-19). 즉,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은 "비교적 화목하다"의 경우보다는 "비교적 화목하지 않다"의 경우 개방형 의사소통($F=7.563$, $p<0.05$)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교

적 화목하지 않다"의 경우 어머니와 문제형 의사소통($F=3.579$, $p<0.05$)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머니와의 갈등대처방식은 "비교적 화목하다"의 경우보다는 "비교적 화목하지 않다"의 경우 개방형 의사소통($F=6.504$, $p<0.05$)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교적 화목하지 않다"의 경우 어머니와 문제형 의사소통($F=4.796$, $p<0.05$)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IV-19>가정분위기에 따른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갈등대처방식**

(N=200)

	가정분위기	아버지			어머니		
		평균 (표준편차)	F	유의 확 률	평균 (표준편차)	F	유의 확 률
개방 형 의사 소통	비교적 화목	2.49(0.85	2.7 89	0.0 17	3.45(0.99	7.5 63	0.0 37
	보통	2.75(0.97			2.29(0.85		
	비교적 안 화목	2.01(0.73			2.64(0.73		
문제 형 의사 소통	비교적 화목	2.54(0.98	1.3 88	0.2 62	2.55(1.23	3.5 79	0.0 37
	보통	2.93(1.05			3.34(1.12		
	비교적 안 화목	3.25(0.91			3.54(0.83		
문제 직면	비교적 화목	2.85(0.94	1.4 65	0.0 57	3.25(1.16	6.5 04	0.0 00
	보통	2.04(0.97			2.99(0.89		

적 대처	비교적 안 화목	2.01(0.81)			2.53(1.09)		
회피 적 대처	비교적 화목 보통 비교적 안 화목	2.83(1.22) 2.87(1.13) 3.65(0.90)	1.9 86	0.0 22	2.23(0.89) 2.54(1.15) 2.64(0.64)	4.7 96	0.0 03

3) 부모 부부갈등, 대처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갈등대처방식의 관계

(1) 자녀가 지각한 부모 부부갈등, 대처와 부-자녀간 의사소통 및 갈등대처방식의 관계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대처와 아버지-자녀간의 의사소통 및 갈등대처방식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IV-20>와 같다. 전체적으로 부부갈등과 하위 영역과 개방형 의사소통 및 문제직면적 대처간에는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부부갈등과 하위 영역과 문제형 의사소통 및 회피적 대처간에는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버지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부부갈등($r=-.463$)변인과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이는 부부갈등을 낮게 인식할수록 개방형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위 영역에서는

해결($r=-.243$)과 개방형 의사소통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부부갈등 상황에서 갈등을 효율적으로 대처할수록 아버지와 개방형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빈도($r=-.229$), 강도($r=-.291$), 내용($r=-.158$), 자기비난($r=-.144$)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갈등 상황에서 갈등의 빈도, 강도, 내용, 자기비난은 아버지와 개방형 의사소통에 매우 약간의 영향을 보여준다.

아버지와의 문제형 의사소통은 부부갈등($r=.403$)변인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이는 부부갈등을 높게 인식할수록 문제형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부부갈등의 하위 영역에서는 강도($r=.423$)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이는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의 강도가 높을수록 문제형 의사소통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부부갈등과 아버지와의 문제형 의사소통간에는 모든 하위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빈도($r=.401$), 내용($r=.241$), 해결($r=.335$), 자기비난($r=.226$)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고 부부싸움의 강도가 심할수록 부부갈등 상황에서 자녀가 자기비난한다고 지각할수록 아버지와는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한다.

아버지와의 문제직면적 대처는 부부갈등($r=-.359$)변인과 부정

상관관계를 가지며, 이는 부부갈등을 낮게 인식할수록 갈등을 생겼을 때 문제직면적 대처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위 영역에서는 강도($r=-.463$)와 문제직면적 대처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해결($r=-.314$), 자기비난($r=-.294$), 빈도($r=-.260$), 내용($r=-.256$)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부부갈등을 발생시 갈등의 강도를 줄이며 갈등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아버지와의 문제직면적 대처방식을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 갈등 상황에서 자녀의 자기비난, 갈등의 빈도와 내용은 아버지와의 문제직면적 대처방식에 약간의 영향을 보여준다.

아버지와의 회피적 대처는 부부갈등($r=.498$)변인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이는 부부갈등을 높게 인식할수록 서로 갈등을 생겼을 때 회피적 대처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부부갈등의 하위 영역에서는 강도($r=.617$)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이는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의 강도가 높을수록 회피적 대처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아본다. 부부갈등과 갈등을 생겼을 때 아버지와의 회피적 대처간에는 모든 하위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해결($r=.439$), 자기비난($r=.412$), 빈도($r=.354$)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부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고 부부싸움의 강도가 심할수록

부부갈등 상황에서 자녀가 자기비난한다고 지각할수록 아버지와는 갈등을 생겼을 때 회피적 대처를 한다.

**<표 IV-20>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부-자녀간 의사소통 및
갈등대처방식의 관계**

	빈도	강도	내용	해결	자기 비난	부부 갈등
아버지와의 개방형의사소통	-.229 ***	-.291 ***	-.158 ***	-.243 ***	-.144 ***	-.463 ***
아버지와의 문제형의사소통	.401* **	.423* **	.241* **	.335* **	.226* **	.403* **
아버지와의 문제직면적대처	-.260 ***	-.463 ***	-.256 ***	-.314 ***	-.294 ***	-.359 ***
아버지와의 회피적 대처	.354* **	.617* **	.254* **	.439* **	.412* **	.498* **

***p<0.001

(2) 자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대처와 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갈등대처방식의 관계

자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과 어머니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IV-21>와 같다. 전체적으로 부부갈등 및 하위 영역과 개방형 의사소통간에는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부

부갈등 및 하위 영역과 문제형 의사소통간에는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과 아버지와 자녀간 의사소통 관계와 같은 경향을 가진다.

어머니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부부갈등($r=-.406$)변인과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이는 부부갈등을 낮게 인식할수록 개방형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하위영역과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특히, 빈도($r=.401$), 강도($r=.411$), 해결($r=.395$)과 개방형 의사소통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부갈등 상황에서 갈등 빈도와 강도를 줄이고 갈등을 효율적으로 대처할수록 어머니와 개방형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어머니와의 문제형 의사소통은 부부갈등($r=.516$)변인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이는 부부갈등을 높게 인식할수록 문제형 의사소통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부갈등의 모든 하위 영역들이 문제형 의사소통과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빈도($r=.468$)와 강도($r=.405$)가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자녀가 강도가 심한 부부싸움을 자주 목격할수록 어머니와 문제형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어머니와의 문제직면적 대처는 부부갈등($r=.408$)변인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이는 부부갈등을 낮게 인식할수록 갈등을 생

겼을 때 문제직면적 대처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위 영역에서는 해결($r=.489$)과 문제직면적 대처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자기비난($r=.376$), 강도($r=.348$), 빈도($r=.21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부부갈등을 발생시 갈등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자녀의 자책과 두려움 등 느낌을 줄이고 갈등의 강도와 빈도를 줄이며 어머니와의 문제직면적 대처방식을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

어머니와의 회피적 대처는 부부갈등($r=.575$)변인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이는 부부갈등을 높게 인식할수록 서로 갈등을 생겼을 때 회피적 대처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부부갈등의 하위 영역에서는 해결($r=.539$)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이는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의 해결이 높을수록 회피적 대처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아본다. 부부갈등과 갈등을 생겼을 때 어머니와의 회피적 대처간에는 모든 하위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빈도($r=.476$), 강도($r=.374$), 자기비난($r=.339$), 내용($r=.338$)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고 부부싸움의 강도가 심할수록 부부갈등 상황에서 자녀가 자기비난한다고 지각할수록 아버지와는 갈등을 생겼을 때 회피적 대처를 한다.

**<표 IV-21>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갈등대처방식의 관계**

	빈도	강도	내용	해결	자기 비난	부부 갈등
어머니와의 개방형의사소통	-.401 ***	-.411 ***	-.251 ***	-.395 ***	-.341 ***	-.406* **
어머니와의 문제형의사소통	.468* **	.405* **	.307* **	.346* **	.401* **	.516** *
어머니와의 문제직면적대처	.214* **	.348* **	-.295 ***	.489* **	.376* **	.408** *
어머니와의 회피적대처	.476* **	.374* **	.338* **	.539* **	.339* **	.575** *

***p<0.001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부부갈등을 높게 인식할수록 개방형 의사소통과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부부갈등과 문제형 의사소통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

부부갈등의 하위 영역과 아버지와의 개방형 의사소통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해결($r=-.243$), 강도($r=-.291$), 빈도($r=-.229$)순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어머니와는 강도($r=-.411$), 빈도($r=-.401$), 해결($r=-.395$)순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의 하위 영역과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문제형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전 영역에서 상관관계를 가진다. 아버지와의 문제형 의사소통과 부부갈등의 하위 영역에서는 강도($r=.423$), 빈

도($r=.401$), 해결($r=.335$)순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어머니와의 문제형 의사소통과 하위 영역에서는 빈도($r=.468$), 강도($r=.405$), 자기비난($r=.401$), 해결($r=.346$)순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 즉, 청소년 자녀가 인식하는 부부갈등의 하위영역 중에서 부부갈등의 빈도가 높고, 강도가 높고, 해결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문제형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버지와의 문제직면적 대처는 부부갈등간의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이는 부부갈등을 낮게 인식할수록 문제직면적 대처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와의 문제직면적 대처는 부부갈등간의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이는 부부갈등을 높게 인식할수록 문제직면적 대처가 많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부갈등의 하위 영역과 아버지와의 문제직면적 대처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강도($r=-.463$), 해결($r=-.314$), 자기비난($r=-.294$)순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어머니와는 해결($r=.489$), 자기비난($r=.376$), 강도($r=.348$)순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의 하위 영역과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회피적 대처에 있어서는 전 영역에서 상관관계를 가진다. 아버지와 회피적 대처와 부부갈등의 하위 영역에서는 강도($r=.617$), 해결($r=.439$), 자기비난($r=.412$), 빈도($r=.354$)순으로 높은 상관관

계를 가지며 어머니와의 회피적 대처와 부부갈등의 하위 영역에서는 해결($r=.346$), 빈도($r=.476$), 내용($r=.438$), 강도($r=.374$)순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 즉, 청소년 자녀가 인식하는 부부갈등의 하위영역 중에서 부부갈등의 빈도가 높고, 강도가 높고, 해결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갈등을 생겼을 때 회피적 대처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자녀의 갈등해결등의 긍정적 요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반면에 부모와 문제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아동은 가족이나 또래관계에서 갈등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적절한 갈등대처 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갈등대처방식뿐 아니라 자녀의 전반적인 대처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부모와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자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처행동을 많이 하는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모와 문제적이고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녀는 소극적이고 회피하는 대처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부부갈등이 최소화 될수록 가정 분위기가 화목할수록 부모와 자녀는 자연스럽게 대화하게 되고, 만족스럽고 기능적인 의사소통은 청소년기 자녀의 올바른 성장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가 부부갈등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으며, 그것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봄으로써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부부갈등을 줄이고 갈등의 효율적 대처를 통하여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보다 기능적이고 개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는 중국에서 거주한 중국인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특히 중국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로 주요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청소년기는 다른 발달과정에 비해 생후 첫 1,2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변화가 큰 시기로 급작스럽게 변하는 신체적 외모와 생물학적 성숙, 새로운 역할과 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면서 심리적으로 많은 갈등과 불안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들은 학자녀와 학부모 포함하여 정상적 1인 자녀 가정의 부부갈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양쪽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대상만을 선정하였다.

이 연구는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은 부모-자녀 의

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은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갈등대처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하위차원별로 살펴보면 "빈도"와 "해결"은 다른 차원에 비해 높게 지각하였고 "내용"은 다른 차원에 비해 낮게 지각하였다. 즉, 부부갈등 상황에서 자녀는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갈등의 내용을 자신이 아닌 다른 외적인 요인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녀는 성별과 연령, 부모의 연령, 학력, 직업, 경제 수입에 따라 생활수준, 가정분위기에 따라 부부갈등을 다르게 지각하였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고 있다. 하위요인에서는 "빈도", "해결"과 "지기비난"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지각했는데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부갈등의 빈도가 많고 부모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지 지각하고 부부갈등 상황에서 난처함이나 곤란함을 더 많이 지각함을 의미한다.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는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특히 부모가 중학교졸업이하일 경우 부부갈등을

가장 높게 지각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폭력적인 행동이 많이 나타나고, 부부간의 안정성이 낮기 때문일 것으로 본다. 교육수준의 증가는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여 부부갈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하위요인에서는 아버지의 학력이 4년제대학교졸업 이상이거나 어머니가 중학교졸업이하일 경우 부부갈등이 자신과 관련된 것이라 생각하는 "빈도", "강도" "해결"을 높게 지각해 차이를 보였는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규명할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부모의 직업이 사무/경영관리직이나 전문직일 경우 보다 일반작업과 무직/조기퇴직/주부일 경우 부부갈등을 더 높게 지각하는데 특히 어머니의 직업이 일반작업과 무직/조기퇴직/주부일수록 자녀는 "해결", "빈도", "강도"를 높게 지각했다. 이는 자녀가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잦은 부부갈등을 목격하여 갈등상황에 두려움을 느끼고 갈등상황을 심각하게 지각함을 의미한다.

자녀가 지각하는 생활수준이 중상 이상일 경우 보다 중하 이상일 경우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였고, 중하류 이하로 지각할수록 "빈도", "강도", "해결", "내용", '자기비난'이 높게 나타나, 자녀는 심각한 부부갈등에 자주 목격하게 되고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두려움을 느끼고 갈등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자녀가 지각하는 가정분위기가 "비교적 화목"일 경우 보다 "비교적 안 화목"일 경우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였고, "비교적 안 화목" 지각할수록 "빈도", "강도", "해결", "내용", '자기비난'이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변인이 낮을수록 자녀는 부부갈등을 더 높게 지각하는데,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참거나 적대감이나 공격성을 자제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어 자녀가 갈등상황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부부갈등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고 부부관계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둘째,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갈등대처방식은 전반적으로 문제형 의사소통 보다는 개방형 의사소통이 더 이루어졌고, 어머니와 더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직면적 대처보다 회피적 대처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대체로 어머니와 대화시간이 더 많고, 일반적으로 여성들에게 정서적 개방이 더 격려되고 대인관계에서도 더

표현적이고 관계지향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녀의 성별, 부모의 학력, 직업, 생활수준, 가정분위기에 따라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갈등대처방식을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버지, 어머니 모두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잘 이루어지고 있다. 반대로 아버지의 학력이 낮을수록 아버지, 어머니 모두와 문제형 의사소통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버지, 어머니 모두와 문제직면적대처를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버지의 학력이 낮을수록 아버지, 어머니 모두와 회피적 대처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같은 경우로 나타났고 특히 4년제 대학교졸업(이상)일경우는 개방형 의사소통을 잘 하고 갈등을 생겼을 때 즉시 잘 해결한다는 것을 알아본다.

아버지의 직업이 사무/경영관리직, 전문직일수록 아버지와 개방형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버지는 일반작업일수록 아버지와 문제형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본다. 아버지가 사무/경영관리직에 종사할 경우 문제직면적 대처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일반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회피적 대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가 사무/경영관리직에 종사할 경우 개방형 의사소통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어머니가 무직/조기퇴직자/주부에 종

사하는 경우 개방형 의사소통은 낮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어머니가 무직/조기퇴직자/주부에 종사하는 경우 문제형 의사소통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머니가 사무/경영관리직에 종사할 경우 문제직면적 대처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무직/조기퇴직자/주부에 종사하는 경우 회피적 대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자녀가 생활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개방형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데 이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들의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다. 자녀가 화목한 가정분위기를 높게 지각할수록 개방형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가정분위기가 "비교적 화목"일 경우 보다 "비교적 화목 하지 않다"일 경우는 문제형 의사소통은 더 많이 이루어졌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버지의 연령이 적고 생활수준이 높은 가정일수록 아버지, 어머니 모두와 개방적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가정에서는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하여 가족원간의 친밀감이나 일체감, 유대감을 많이 느끼고 가족의 규칙이나 역할 등에 융통성을 가지게 되어 기능적인 가족이 된다. 이는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부모-자녀 관계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서 자녀의 건전한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셋째,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갈등대처방식은 자녀가 부부갈등을 낮게 인식할수록 아버지, 어머니와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직면적 대처방식이 많이 이루어지고, 부부갈등을 높게 인식할수록 아버지, 어머니와 문제형 의사소통과 회피적 대처방식을 많이 하였다. 이는 가정의 분위기가 화목할수록 대화시간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자녀에 대한 이해를 도움으로써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에서는 강도, 빈도, 해결순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부부갈등 상황에서 부부갈등이 원만히 해결되고, 그 심각성을 낮게 지각하고, 노출빈도가 적고, 두려움과 난처함이나 곤란함을 지각하는 정도가 낮을수록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특히 "해결"에서 높은 상관을 보여 갈등 상황에서 효율적인 대처와 원만한 해결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부부갈등이 자녀 자신과 관련된 것이라고 지각하는 "내용"과 원인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자기비난"은 아버지와의 개방형 의사소통과는 상관이 없었다. 이는 부부갈등의 요인이 자녀문제보다 부부간 성격차이, 경제문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어머니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모든 하위영역에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강도", "빈도", "해결", "자기비난", "내용" 순으로 특히 "강도"와 "빈도"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

여 자녀 앞에서 심각한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부부갈등의 모든 하위영역과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문제형 의사소통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녀가 심각한 부부싸움을 자주 목격하고, 자녀 자신과 관련되거나 자신의 탓이라고 지각하고, 갈등상황에서 두려움과 난처함, 곤란함을 많이 느끼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지각할수록 문제형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진다. 어머니와의 문제형 의사소통에서는 강도, 빈도, 해결, 내용, 자기비난 순으로 높은 상관을 보였고, 어머니와의 문제형 의사소통에서는 빈도, 강도, 자기비난, 해결, 내용 순으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는 특히 부부갈등시 자녀가 "빈도", "강도", "해결"을 높게 지각할수록 즉, 부모가 잦은 부부싸움을 하고 그 강도가 언어적 싸움에서 폭력 등으로 심각해지고 원만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청소년기 자녀는 부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버지와의 문제직면적 대처에서는 강도, 해결, 자기비난, 빈도, 내용순으로 상관관계를 보였고 어머니와의 문제직면적 대처에서는 해결, 자기비난, 강도, 빈도, 내용순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부부갈등 상황에서 부부갈등이 원만히 해결되고, 그 심각성을 낮게 지각하고, 노출빈도가 적고, 두려움과 난처함이나 곤란

함을 지각하는 정도가 낮을수록 갈등을 생겼을 때 갈등상태에서 협력적이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성취하게 되어 부모-자녀간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이 향상시킬 수 있다.

부부갈등의 모든 하위영역과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회피적 대처 방식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아버지와 회피적 대처에서는 강도, 해결, 빈도, 자기비난, 내용순으로 상관관계를 보였고 어머니와의 회피적 대처에서는 해결, 빈도, 강도, 자기비난, 내용순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부부갈등시 자녀가 "빈도", "강도", "해결"을 높게 지각할수록 즉, 부모가 잦은 부부싸움을 하고 그 강도가 언어적 싸움에서 폭력 등으로 심각해지고 원만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청소년기 자녀는 부모와 적극적이고 문제직면적 대처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은 모든 하위요인에서 의사소통 및 갈등대처방식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자녀는 부부갈등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부갈등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분노와 불안정감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부모님의 이혼 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서 가정의 화목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된다. 하지만 부부갈등은 인간 상호작용에서 불가피한 요소이므로 가능한 부부갈등을 줄이면서 동시에 갈등시 대처방식과 갈등표출 방법을

모색하고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부부갈등에 대해 자녀가 부정적인 측면만을 지각하지 않도록 부모가 노력해야 한다. 부부갈등이 최소화 될수록 가정 분위기가 화목할수록 부모와 자녀는 자연스럽게 대화하게 되고, 만족스럽고 기능적인 의사소통은 청소년기 자녀의 올바른 성장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는 무엇보다도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분위기에서 대화를 통해 자녀에게 일어나는 급격한 신체적·정서적 변화와 또래집단의 영향을 이해하고 수용하여 자녀가 모든 상황에 대해 의논할 수 있도록 늘 이해하고 도와주는 부모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은 의사소통과 갈등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더 나아가 자녀의 문제행동까지 일으킬 우려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부부갈등이 청소년기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측면과 심각성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부부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의사소통 방법이나 갈등대처방법 등의 부모교육이 요구된다. 부부는 사소한 의견 차이에서 혹은 육아문제, 경제적 문제등 다양한 상황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갈등 해결에 집중하지 못하면 갈등이 왜곡되어 가족해체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갈등에 적극적으로 대화로 대처하다 보면 갈등 해결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과 분노가 감소되는

등 가정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점을 보완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중국 사천성 청두시(CHENG DU)에 위치한 고등학교 방문 협조를 요청 후 실시되었다. 조사 대상들은 학자녀와 학부모 포함하여 정상적 1인자녀 가정중 양쪽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대상만을 선정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중 청소년 자녀용 질문지는 1991년 민하영에 의해 수정된 질문지를 참고하여 중국의 실정에 맞추어 요즘의 청소년들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재수정된 질문지가 요구된다.

셋째, 배경 변인 중 생활수준과 가정분위기는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된 수준이 아닌 자녀가 지각하는 수준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 무리가 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제시된 지표로 생활수준과 가정분위기에 따른 부부갈등과 의사소통과 갈등대처방식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 참 고 문 헌 >

국어문헌

박기정 <가족 커뮤니케이션>,사회과학,23호,1984,P155

노영주 서동인, 원효종 역, <가족관계와 의사소통> (서울:하우, 2001) P9

곽덕영, 김미화, <부모교육론> (서울:양서원, 2000) P175

장호선(1987)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 학위 논문,P3

정명희(1988)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 문제 행동과의 상관연구,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학위논문,P5

권지아(2010)부부의 성격유형과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방식의 관계,한남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논문

박정자(2005)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성격과의 관계 연구 : 경기도 시흥시 고등학생의 인식을 중심으로, 안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석사 학위논문

김은영(2009)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아동의 교우관계 및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제주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원미정(2016)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구혜진(2002) 맞벌이 부부의 역할갈등과 부부의사소통이 직무성과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자(1998) 부부갈등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서울신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혜수(2003)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공격성과의 관계,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연옥(1987) 사춘기 자녀와 어머니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길미령(1990) 부부의 공동의사 결정시 내재된 갈등과 갈등관리 형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준호(2012) 부부갈등이 청소년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통한 인지, 정서의 매개된 조절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미자(2010)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부부갈등이 청소년 자녀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유진(2006) 부부갈등의 경험과 부부갈등의 해결정도가 아동의 정서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문재(2010) 부모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자녀의 의사소통 유형 연구, 국제신학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민(2010) 부부갈등,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남녀 청소년의 친구 관계 질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민하영(1991) 청소년 비행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권영옥(1997)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행동문제,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권인경(200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김소향(1995) 부부갈등에 대한 아동의 감정적 평가와 인지적 평가,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류승희(2000) 부부갈등에 대한 자녀의 지각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이영미,민하영,이윤주(2005) 부모간갈등과부모자녀간의사소통에따른후기 청소년의심리·사회적적응,한국가정관리학회

송성성(2014) 부모-자녀간의 애착유형과 자녀의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성향 및 갈등해결전략 간의 관계 : 중국인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방문희(1992)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대인관계 성향에 관한 연구,동아대학교 대학원,학위논문

고정자,김감숙(1992) 부부갈등이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제13권 1호,80~89

김병길(2003) 갈등 상황에서의 가족간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 KBS '아침마당' 사례분석, 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정남열(2007)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청년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 남현동에 위치한 H교회를 중심으로,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학위논문(석사)

권오실(1995) 부부간의 갈등정고와 갈등관리방법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민혜영(1990) Circumplex Model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김갑숙, 고정자(1992) 부부갈등이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 13(1)

노현숙(2007) 낙관성과 스트레스 지각이 갈등해결양식 및 이성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생생활연구, 10, 1-15

이은주(2004) 청소년의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갈등과 자아개념.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표선(2003) 아동의 또래지위와 우정의 질 및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재경(1991) 부부의 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형성기 가정과 확대기 가정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나상오(2000) 부부갈등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과 해결방안 연구, 협성대 석사학위논문

이향선(2000) 부부갈등이 청소년기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이은희(2008). 청소년의 자아분화가 대인관계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국외문헌

安伯欣(2004) 父母教养方式、亲子沟通与青少年社会适应的关系研究,陕西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刘子彦·李斌(2006)郑州:八成问题青少年缺乏与父母沟通.

赵超(ZHAO CHAO)(2015) 高中生亲子关系现状调查及家校合作改善亲子关系的教育建议,内蒙古师范大学,心理健康教育专业学位,硕士论文

胡悦(HU YUE)(2007) 亲子沟通与青少年健康成长,哈尔滨工程大学,马克思主义理论与思想政治教育,硕士论文

李东(LI DONG)(2008) 当前我国家庭亲子冲突对策研究,福建师范大学,马克思主义理论与思想政治教育,硕士论文

刘瑾(LIU JIN)(2005) 父母冲突对未成年人人格健康发展的不良影响研究,武汉大学,社会学,硕士论文

Robert J. Sternberg(2016). Cornell University, New York , Karin Sternberg, Cornell University, New York

Bowon(1966), The use of family theory in clinical practice, Comprehensive Psychiatry, 장혁표.재석봉.김정택 공역, 서울 : 중앙적성 출판사

Kathleen M Galvin & Bernard J. Brommel(1995), 가족관계와 의사소통 - 응집성의 변화, 노영주.서동인.원효종 역, 도서출판 하우

Ross, E. A.(1920). The principle of sociology. New York: The Country Co. 박재환역(1980). 갈등의 사회적 기능. 서울: 한길사

Cooley, C. H. (1918). Social process. New York : Scribner's sons.박재환역 (1980) 갈등의 사회적 기능. 서울: 한길사

Cooley, C.H., Social process(1980), 갈등의 사회적 기능, 박재환 역, 한길사

부록 - 설문지

1. 조사 설문지(국문)

부부소통이 부모-자녀간 소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경대학교 신문방송 대학원 석사3학기 탕로만이라고 합니다.

저는 갈등대처방식을 중심으로 부부 소통이 부모-자녀간 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목적은 자녀가 부부갈등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으며 그것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관계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부부갈등을 줄이고 갈등의 효율적 대처를 통하여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보다 기능적이고 개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귀하의 응답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오직 연구의 자료로만 사용됩니다. 이 답변들이 소중한 자료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되니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한 문항에 하나의 번호만 골라 응답해 주세요.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본 설문조사에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2월

부경대학교 신문방송 대학원

지도 교수: 김용호

연구자: TANG LUMAN

(tangluman1026@gmail.com)

- 자녀편

(1) 자녀가 지각한 부모 부-부간갈등

* 다음은 부모님에 대한 질문이며,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를 해주세요.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 통	그 렇 다	매우 그렇 다
1.나는 우리 부모님이 다투 시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2.우리 부모님이 다투시면 보통 잘 해결이 된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3.우리 부모님은 나의 학교 일 때문에 자주 다투시게 된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4.우리 부모님은 평소에 내 가 하는 일 때문에 다투시 거나 의견이 맞지 않는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5.우리 부모님은 다투실 때 는 상대방에게 큰 소리를 많이 지르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6.우리 부모님은 내가 모른 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자주 다투시거나 의견이 맞지 않 으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7.우리 부모님은 거의 다투 시지 않는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8.부모님은 다투실 때는 나 뿐 말이나 욕을 하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9.우리 부모님은 다투신 후 에도 서로에게 화가 나 있 으시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10.부모님은 어떤 일에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대부분 해결책을 찾아내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11.우리 부모님은 다투신 후 보통 금방 사이가 좋아 지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12.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나는 부모님사이에 낀 것 같아 난처하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13.우리 부모님은 다투시는 도중 서로 밀치거나 떠민 적이 있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14.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나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실까봐 걱정한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15.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내가 말하는 것은 전혀 듣지 않으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16.나는 부모님이 다투시는 것을 자주 본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17.우리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잘못 했을 때 가끔 다투시게 된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18.우리 부모님은 다투시는 중에 물건을 부수거나 던진 적이 있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19.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나에게도 소리를 지를까 봐 두렵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20.우리 부모님은 보통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다투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2) 자녀-부모간의사소통

* 다음은 부모님과와의 소통 및 갈등을 발생시 갈등 요인 및 해결방식에 대한 귀하의 느낌이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를 해주세요.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 통	그 렇 다	매우 그렇 다
21.나는 부모와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구한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22.나는 부모와갈등이 있을 때, 갈등사안에 대한 모든 의견을 아이와 즉시 드러내 놓고 이야기한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23.내가 원하는 것을 부모님께 말씀 드리기가 때때로 조심스럽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24.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어려워하지 않고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25.나는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26.내가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은 나의 감정이 어떤지 잘 아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27.부모님은 나에게 화를 내실 때면 모욕감을 주면서 꾸중하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28.부모님은 내 느낌을 이해해 주시려고 애 쓴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29.우리 부모님은 나의 질	아버지	1	2	3	4	5

문을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다.	어머니	1	2	3	4	5
30.부모님께 나의 고민을 의논드리지만 의논드리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있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31.우리 부모님은 내가 뻔히 알고 있는 것도 굳이 이야기해서 내 기분을 상하게 하시는 편이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32.나는 부모와 갈등이 있을 때, 서로간의 긴장이 일어나는 상황을 되도록 피하려고 한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33.나는 가끔 부모님과 논쟁을 불러일으킬만한 의견을 내는 것을 피한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 다음은 통계 처리에 필요한 기초 조사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하거나 숫자를 써 주세요.

34.귀하의 성별은? (1) 남학생 () (2) 여학생 ()

35.귀하 아버지의 학력은 ?

- (1)고등학교졸업(이하) () (2) 전문대학교졸업(3년제) ()
(3) 대학교졸업(4년제) () (4) 대학원 이상 ()

36.귀하 어머니의 학력은?

- (1)고등학교졸업(이하) () (2) 전문대학교졸업(3년제) ()
(3) 대학교졸업(4년제) () (4) 대학원 이상 ()

37.귀하 부모님의 직업은?

아버지 _ 어머니 _

- (1)일반 작업직 (현장 작업,청소,경비)
 (2)사무/경영관리직(고급 공무원,대기업 부장 이상,교장,교사,공무원)
 (3)전문/자유직(의사,변호사,교수,예술가,목사,세무사,약사)
 (4) 무직/조기퇴직자/주부

38.귀하의 집의 분위기는 ?

- (1) 비교적 화목() (2) 보통() (3) 비교적 안 화목()

39.귀하의 집의 경제적 수준은?

- (1) 중상() (2) 중하

- 아버님편

(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 다음은 귀하께서 평소 자녀와 소통방식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문항입니다. 귀하의 행동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 한 곳에만 빠짐없이 ○표를 하여 주십시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 통	그 렇 다	매우 그렇 다
1.내 아이는 내 말을 늘 귀담아 들어준다.	1	2	3	4	5
2.내 아이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감정이 어떤지 잘 안다.	1	2	3	4	5
3.내 아이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니 차라리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다.	1	2	3	4	5
4.나는 내 아이에게 말을 할 땐 조심스럽고 꺼려진다.	1	2	3	4	5
5.나는 마음 놓고 내 아이에게 애정	1	2	3	4	5

을 표시한다.					
6.나에게는 아이와 의논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	1	2	3	4	5
7.나는 아이와 대화를 하면 만족스럽다.	1	2	3	4	5
8.아이는 나의 질문을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다.	1	2	3	4	5
9.나는 가끔 아이와 논쟁을 불러일으킬만한 의견을 내는 것을 피한다.	1	2	3	4	5
10.나는 아이와 갈등이 있을 때, 서로간의 긴장이 일어나는 상황을 되도록 피하려고 한다.	1	2	3	4	5
11.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아이한테 모두 말씀드릴 수 있다.	1	2	3	4	5
12.나는 아이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구한다.	1	2	3	4	5
13.나는 아이와갈등이 있을 때, 갈등사안에 대한 모든 의견을 아이와 즉시 드러내놓고 이야기한다.	1	2	3	4	5

(2) 부부간 소통

* 다음은 귀하께서 평소 아내와 어떻게 대화하는지, 갈등 발생한 요인과 해결책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문항입니다. 귀하의 행동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 한 곳에만 빠짐없이 ○표를 하여 주십시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 통	그 렇 다	매우 그렇 다
14.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거나 대화를 나눌 시간이 부족하다.	1	2	3	4	5
15.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존	1	2	3	4	5

중하지 않을 때가 있다.					
16.상대방과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있다.	1	2	3	4	5
17.나는 배우자와 갈등이 있을 때, 서로간의 긴장이 일어나는 상황을 되도록 피하려고 한다.	1	2	3	4	5
18.나는 배우자와 문제가 있으면, 다시 생각할 시간이 생길 때까지 그 문제를 연기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19.나는 우리관계가 나빠지지 않도록 배우자의 생각이나 의견에 맞춰주는 편이다.	1	2	3	4	5
20.나는 배우자와 갈등이 있을 때, 갈등사안에 대한 모든 의견을 배우자와 즉시 드러내놓고 이야기한다.	1	2	3	4	5
21.자녀의 교육,양육방법문제에 대한 의견차이로 다툼적이 있다.	1	2	3	4	5
22.경제적 어려움 문제 때문에 아내와 의견차이로 다툼적이 있다.	1	2	3	4	5
23.인생관,가치관 차이 때문에 아내와 다툼적이 있다.	1	2	3	4	5
24.성격차이 때문에 아내와 다툼적이 있다.	1	2	3	4	5
25.다음번엔 상대방의 의견을 고려할 것을 약속한다.	1	2	3	4	5
26.나는 우리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구한다.	1	2	3	4	5
27.서로 대립된 부분을 조금씩 양보하는 중간선에서 타협하기를 원한다.	1	2	3	4	5
28.나는 가끔 배우자와 논쟁을 불러일으킬만한 의견을 내는 것을 피한다.	1	2	3	4	5

다.					
----	--	--	--	--	--

- 어머니편

(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 다음은 귀하께서 평소 자녀와 소통방식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문항입니다. 귀하의 행동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 한 곳에만 빠짐없이 ○표를 하여 주십시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 통	그 렇 다	매우 그렇 다
1.내 아이는 내 말을 늘 귀담아 들어준다.	1	2	3	4	5
2.내 아이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감정이 어떤지 잘 안다.	1	2	3	4	5
3.내 아이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니 차라리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다.	1	2	3	4	5
4.나는 내 아이에게 말을 할 땐 조심스럽고 꺼려진다.	1	2	3	4	5
5.나는 마음 놓고 내 아이에게 애정을 표시한다.	1	2	3	4	5
6.나에게는 아이와 의논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	1	2	3	4	5
7.나는 아이와 대화를 하면 만족스럽다.	1	2	3	4	5
8.아이는 나의 질문을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다.	1	2	3	4	5
9.나는 가끔 아이와 논쟁을 불러일	1	2	3	4	5

으킬만한 의견을 내는 것을 피한다.					
10.나는 아이와 갈등이 있을 때, 서로간의 긴장이 일어나는 상황을 되도록 피하려고 한다.	1	2	3	4	5
11.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아이한테 모두 말씀드릴 수 있다.	1	2	3	4	5
12.나는 아이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구한다.	1	2	3	4	5
13.나는 아이와갈등이 있을 때, 갈등사안에 대한 모든 의견을 아이와 즉시 드러내놓고 이야기한다.	1	2	3	4	5

(2) 부부간 소통

* 다음은 귀하께서 평소 아내와 어떻게 대화하는지,갈등을 발생시 갈등요인과 해결방식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문항입니다. 귀하의 행동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 한 곳에만 빠짐없이 ○표를 하여 주십시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 통	그 렇 다	매우 그렇 다
14.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거나 대화를 나눌 시간이 부족하다.	1	2	3	4	5
15.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을 때가 있다.	1	2	3	4	5
16.상대방과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있다.	1	2	3	4	5
17.나는 배우자와 갈등이 있을 때, 서로간의 긴장이 일어나는 상황을 되도록 피하려고 한다.	1	2	3	4	5
18.나는 배우자와 문제가 있으면, 다시 생각할 시간이 생길 때까지 그 문제를 연기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19.나는 우리관계가 나빠지지 않도록 배우자의 생각이나 의견에 맞춰주는 편이다.	1	2	3	4	5
20.나는 배우자와 갈등이 있을 때, 갈등사안에 대한 모든 의견을 배우자와 즉시 드러내놓고 이야기한다.	1	2	3	4	5
21.자녀의 교육,양육방법문제에 대한 의견차이로 다툼적이 있다.	1	2	3	4	5
22.경제적 어려움 문제 때문에 아내와 의견차이로 다툼적이 있다.	1	2	3	4	5
23.인생관,가치관 차이 때문에 아내와 다툼적이 있다.	1	2	3	4	5
24.성격차이 때문에 아내와 다툼적이 있다.	1	2	3	4	5
25.다음번엔 상대방의 의견을 고려할 것을 약속한다.	1	2	3	4	5
26.나는 우리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구한다.	1	2	3	4	5
27.서로 대립된 부분을 조금씩 양보하는 중간선에서 타협하기를 원한다.	1	2	3	4	5
28.나는 가끔 배우자와 논쟁을 불러일으킬만한 의견을 내는 것을 피한다.	1	2	3	4	5

부록 - 설문지

1. 조사 설문지(중문)

关于夫妻沟通对父母子女之间沟通的影响的研究

您好，

我是韩国釜庆国立大学新闻媒体专业硕士过程第3学期的在读研究生汤璐蔓。现在正在做夫妻沟通对父母子女之间沟通的影响的相关研究。

本问卷是匿名调查，对于您回答的内容，不会做任何除研究目的以外的用途，所以请您诚实回答问卷调查的每一项内容。

您的答案是本研究非常重要的基础材料，请您在百忙之中抽出一件事时间完成所有问卷。感谢您的帮助与回答。谢谢!

2017年2月

指导教师：金融虎（英译）

研究者：汤璐蔓

联系邮箱：tangluman1026@gmail.com

- 子女篇

(1) 对父母之间的沟通和矛盾的认知及感受

*下面是自己对于父母之间沟通以及矛盾的认知感受，请用○勾画出最接近的一项。（父亲与母亲分开勾画）

内容		完全不是	不是	一般	是	完全是
1.我有看到过我的父母吵架。	父亲	1	2	3	4	5
	母亲	1	2	3	4	5
2.我的父母如果吵架通常都能很好的解决。	父亲	1	2	3	4	5
	母亲	1	2	3	4	5
3.我的父母因为我学校的事情经常争吵。	父亲	1	2	3	4	5
	母亲	1	2	3	4	5
4.我的父母常因为家务事吵架。	父亲	1	2	3	4	5
	母亲	1	2	3	4	5
5.我的父母争吵时会向对方大声地喊叫。	父亲	1	2	3	4	5
	母亲	1	2	3	4	5
6.我的父母平时因为我或者我做的事情吵架或者意见不一致。	父亲	1	2	3	4	5
	母亲	1	2	3	4	5
7.我的父母在争吵的时候会发很大的火。	父亲	1	2	3	4	5
	母亲	1	2	3	4	5
8.我的父母吵架时常说一些难听的话或者侮辱对方。	父亲	1	2	3	4	5
	母亲	1	2	3	4	5
9.我的父母意见不一致的时候安静的议论。	父亲	1	2	3	4	5
	母亲	1	2	3	4	5
10.我的父母不管因为任何事情意见不一致，通常很快就能找到解决方法。	父亲	1	2	3	4	5
	母亲	1	2	3	4	5
11.我的父母通常争吵之后很快就能和好。	父亲	1	2	3	4	5
	母亲	1	2	3	4	5
12.我的父母吵架的时候，我感觉跟父母之间的关系很让我为难。	父亲	1	2	3	4	5
	母亲	1	2	3	4	5
13.我的父母在争吵中有过推搡对方的行为。	父亲	1	2	3	4	5
	母亲	1	2	3	4	5
14.我的父母在争吵的时候我很担心害怕他们会闹离婚。	父亲	1	2	3	4	5
	母亲	1	2	3	4	5
15.我的父母在争吵的时候完全不	父亲	1	2	3	4	5

听我在说什么。	母亲	1	2	3	4	5
16.我的父母在家里常常相互唠叨或者发牢骚。	父亲	1	2	3	4	5
	母亲	1	2	3	4	5
17.我犯了错的时候我的父母立刻就能吵起来。	父亲	1	2	3	4	5
	母亲	1	2	3	4	5
18.我的父母在争吵中会摔东西或砸东西。	父亲	1	2	3	4	5
	母亲	1	2	3	4	5
19.我很担心害怕父母争吵时也对着我大叫。	父亲	1	2	3	4	5
	母亲	1	3	3	4	5
20.我经常看见父争吵。	父亲	1	2	3	4	5
	母亲	1	2	3	4	5

(2) 与父母之间沟通

*下面是自己与父母平常的沟通，以及发生矛盾的原因及矛盾解决方式的认识和想法，请用○勾画出最接近的一项。（父亲与母亲分开勾画）

内容		完全不是	不是	一般	是	完全是
21.我可以毫不犹豫地告诉父母我的想法。	父亲	1	2	3	4	5
	母亲	1	2	3	4	5
22.我的父母总是很耐心的听我说话。	父亲	1	2	3	4	5
	母亲	1	2	3	4	5
23.我跟父母说自己想要的东西时总是很小心翼翼。	父亲	1	2	3	4	5
	母亲	1	2	3	4	5
24.我时常大声地跟父母对嘴。	父亲	1	2	3	4	5
	母亲	1	2	3	4	5
25.苦恼的时候可以没有困难地跟父母述说。	父亲	1	2	3	4	5
	母亲	1	2	3	4	5
26.和父母聊天我很开心。	父亲	1	2	3	4	5
	母亲	1	2	3	4	5
27.即使我不说父母也知道我的感受。	父亲	1	2	3	4	5
	母亲	1	2	3	4	5

28.父母在拿我和别人比较时，我会一边反抗一边指责父母。	父亲	1	2	3	4	5
	母亲	1	2	3	4	5
29.我的父母会费心理解我的意见或建议。	父亲	1	2	3	4	5
	母亲	1	2	3	4	5
30.不管任何事情我都可以坦率地告诉父母。	父亲	1	2	3	4	5
	母亲	1	2	3	4	5
31.父母和我之间意见不一致时我总是带着不愿解决的表情回避问题。	父亲	1	2	3	4	5
	母亲	1	2	3	4	5
32.我的父母可以坦率地回答我的问题。	父亲	1	2	3	4	5
	母亲	1	2	3	4	5
33.我可以很好地跟父母一起讨论好几个问题。	父亲	1	2	3	4	5
	母亲	1	2	3	4	5

下面是用于统计处理的基础调查，请用○勾画出最合适的一项。

34.您的性别是？

(1) 男学生

(2) 女学生

35.您父亲的学历是？

(1) 高中毕业或以下

(2) 三年制专科毕业

(3) 四年制本科毕业

(4) 研究生毕业或以上

36.您母亲的学历是？

(1) 高中毕业或以下

(2) 三年制专科毕业

(3) 四年制本科毕业

(4) 研究生毕业或以上

37.您父母的职业是？

父亲 ()

母亲 ()

(1) 一般工作 (现场工作，清洁工，警卫员等)

- (2) 事务/经营管理职 (公务员, 大企业干部, 校长, 教师等)
 (3) 专门/自由职 (医生, 律师, 教授, 艺术家, 牧师, 税务师等)
 (4) 无业/早期退休/家庭主妇

38. 你的家庭氛围是 ?

- (1) 比较和睦 (2) 一般 (3) 比较不和睦

39. 您的家庭根据经济收入水平来看是哪一个阶层 ?

- (1) 中上 (2) 中下

- 父亲篇

(1) 与孩子的沟通以及矛盾解决方式

* 下面是您平时与孩子的沟通方式和矛盾发生时解决矛盾的方式, 请用○
 勾画出最接近的一项。

内容	完全 不是	不 是	一 般	是	完全 是
1. 我可以毫不犹豫地告诉孩子我的想法。	1	2	3	4	5
2. 我的孩子总是很耐心的听我说话。	1	2	3	4	5
3. 我跟孩子说话时总是很小心翼翼的有所顾虑。	1	2	3	4	5
4. 我时常大声地对着孩子喊叫。	1	2	3	4	5
5. 苦恼的时候可以没有困难地跟孩子述说。	1	2	3	4	5
6. 和孩子聊天我很开心。	1	2	3	4	5
7. 即使我不说孩子也知道我的感受。	1	2	3	4	5
8. 孩子在拿别的父母跟我比较时, 我会	1	2	3	4	5

反抗或者指责孩子。					
9.我的孩子会费心理解我的建议。	1	2	3	4	5
10.不管任何事情我都可以坦率地告诉孩子我的感受。	1	2	3	4	5
11.因为孩子和自己的意见不同，带着不满意的表情回避不愿解决问题。	1	2	3	4	5
12.我的孩子可以坦率地回答我的问题。	1	2	3	4	5
13.我可以很好地和孩子一起讨论好几个问题。	1	2	3	4	5

(2)夫妻之间的沟通，矛盾发生的原因以及解决方式

*下面是您平时与妻子的对话方式，发生矛盾的原因以及解决方式，请用○勾画出最接近的一项。

内容	完全不是	不是	一般	是	完全是
14.我和妻子敞开心扉沟通很困难。	1	2	3	4	5
15.我容易跟妻子发火并且大声说话。	1	2	3	4	5
16.妻子不能够理解我，我感觉内心不公平。	1	2	3	4	5
17.我和妻子之间如果有了意见不合，我会告诉妻子我的不满。	1	2	3	4	5
18.我可以很坦率地告诉妻子我的立场或者意见。	1	2	3	4	5
19.我和妻子发生矛盾后，我会长时间保持沉默。	1	2	3	4	5
20.发生矛盾时会展开人身攻击。	1	2	3	4	5
21.争吵激烈的时候会说出很多无心的话,甚至侮辱或者辱骂对方。	1	2	3	4	5
22.矛盾已经发生时，我会安静的议论并	1	2	3	4	5

且努力去解决问题。					
23.因为子女的教育，养育方法等问题意见不一致而争吵。	1	2	3	4	5
24.因为经济困难的问题和妻子意见不一致而争吵。	1	2	3	4	5
25.因为人生观和价值观差异和妻子争吵。	1	2	3	4	5
26.因为性格差异和妻子争吵。	1	2	3	4	5
27.争吵后和妻子约定好下一次会考虑对方的意见。	1	2	3	4	5
28.相互满足，商量新的解决方案。	1	2	3	4	5

- 母亲篇

(1)与孩子的沟通以及矛盾解决方式

*下面是您平时与孩子的沟通方式和矛盾发生时解决矛盾的方式，请用○勾画出最接近的一项。

内容	完全不是	不是	一般	是	完全是
1.我可以毫不犹豫地告诉孩子我的想法。	1	2	3	4	5
2.我的孩子总是很耐心的听我说话。	1	2	3	4	5
3.我跟孩子说话时总是很小心翼翼的有所顾虑。	1	2	3	4	5
4.我时常大声地对着孩子喊叫。	1	2	3	4	5
5.苦恼的时候可以没有困难地跟孩子述说。	1	2	3	4	5
6.和孩子聊天我很开心。	1	2	3	4	5
7.即使我不说孩子也知道我的感受。	1	2	3	4	5
8.孩子在拿别的父母跟我比较时，我会反	1	2	3	4	5

抗或者指责孩子。					
9.我的孩子会费心理解我的建议。	1	2	3	4	5
10.不管任何事情我都可以坦率地告诉孩子我的感受。	1	2	3	4	5
11.因为孩子和自己的意见不同，带着不满意的表情回避不愿解决问题。	1	2	3	4	5
12.我的孩子可以坦率地回答我的问题。	1	2	3	4	5
13.我可以很好地的孩子一起讨论好几个问题。	1	2	3	4	5

(2)夫妻之间的沟通，矛盾发生的原因以及解决方式

*下面是您平时与妻子的对话方式，发生矛盾的原因以及解决方式，请用

○勾画出最接近的一项。

内容	完全不是	不是	一般	是	完全是
14.我和丈夫敞开心扉沟通很困难。	1	2	3	4	5
15.我容易跟丈夫发火并且大声说话。	1	2	3	4	5
16.丈夫不能够理解我，我感觉内心不公平。	1	2	3	4	5
17.我和丈夫之间如果有了意见不合，我会告诉妻子我的不满。	1	2	3	4	5
18.我可以很坦率地告诉丈夫我的立场或者意见。	1	2	3	4	5
19.我和丈夫发生矛盾后，我长时间保持沉默。	1	2	3	4	5
20.发生矛盾时会展开人身攻击。	1	2	3	4	5
21.争吵激烈的时候会说出很多无心的话，甚至侮辱或者辱骂对方。	1	2	3	4	5
22.矛盾已经发生时，我会安静的议论并	1	2	3	4	5

且努力去解决问题。					
23.因为子女的教育，养育方法等问题意见不一致而争吵。	1	2	3	4	5
24.因为经济困难的问题和妻子意见不一致而争吵。	1	2	3	4	5
25.因为人生观和价值观差异和妻子争吵。	1	2	3	4	5
26.因为性格差异和妻子争吵。	1	2	3	4	5
27.和丈夫约定好下一次会考虑对方的意见。	1	2	3	4	5
28.相互满足，商量新的解决方案。	1	2	3	4	5

